

이재명 “대규모 택지 개발 공약 설 전 발표” 9



조용병 “신한금융 전직원 셀프 리더십 갖춰야” 11

절세혜택 누리며 국내주식 투자까지!  
**중개형 ISA**  
\*투자 전 상담 필수 및 상품설명서 확인 필수 \*보통이자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거주

**KB증권**

코스피(4일)	2989.24 (+0.47P)	코스닥	1031.66 (-6.17P)
환율(달러당 원화)	1194.10 (+2.3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68% (+0.013%p)

## 폭등한 외식물가, 앞으로 더 오른다

12월 외식물가 10년 만에 최고  
원재료·배달비·가공식품 급등  
농·축산물 가격은 큰 영향 없어  
유통 마진 등 높아져 더 오를 듯

외식하기가 두렵다. 외식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4.8%로 2011년 9월 이후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재료값 상승에 배

애플리케이션(앱) 독과점으로 대표되는 유통구조 왜곡과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농·축산물 등 원재료 가격 인상을 지목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지난해 폭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되면 외식물가가 내려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돼도 외식물가가 내린 적은 없다.

기존의 추세를 볼 때,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외식물가도 따라 올랐다. 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10.5~16.5%였던 1988~1991년 외식물가 상승률도 9.9~19.8%에 달했다. 농산물 물가가 31.5% 급등했던 1994년에는 외식물가 상승률이 전년 5.5%에서 6.8%로 커졌다. 하지만 농·축산물 가격이 내린다고 외식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2008년 농산물 물가는 5.4% 내렸지만, 외식물가는 1999년 이후 최고치(4.8% 상승)를 기록했다. 외식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외환위기 여파로 전 반적인 내수소비가 얼어붙었던 1999년(-0.9%)뿐이다.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품목별 물가상

승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농산물 가격은 외식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물가는 외식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영향력은 미미했다.

반면, 외식물가 상승요인은 널려 있다. 조사품목 중 외식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가공식품으로 4월 이후 단계적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물가 조사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주문중개수수료와 배달료 등도 줄줄

이 오르고 있다. 방역 안정에 따른 수요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종료(12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등도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외식물가 상승 폭은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유통·생산자 마진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는 독과점이나 과점 형태의 유통구조 왜곡도 있다고 본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외식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세계 신년인사회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정·관계와 재계, 노동계 등 각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대전환 시기인 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고이란 기자 photoeran@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 길 열리나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전조정위 통과, 11일 의결 전망

경제계 “노사 불균형 심화” 반발

국회 기재조정위원회 안전조정위는 4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안전조정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범여권이 단독처리할 거라는 관측을 뒤집고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로써 법안심사소위 심사 통과로 간주돼 오는 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지구 심사까지 거치면 여야가 합의한 오는 11일 본회의에 올라 의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안전조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발의한 안으

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 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재직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즉,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켜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경제계에선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공동입장을 내고 “노동이사제 부작용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갈등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 AI·로봇·메타버스로 ‘사용자 초연결’

CES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오늘 개막

가전, 로봇·모빌리티 비중 확대  
사람·집·도시 미래기술로 연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2’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5일(현지시간) 공식 개막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CES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 대기업들도 소비자들의 일상을 바꿀 혁신 신제품을 속속들이 공개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CES에서 기업들이 주목한 포인트는 ‘사용자 경험’과 ‘융합’이다. 미래 기술을 단순히 제품에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을 한데 융합해 사용자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내 걸었다. 개인과 집, 도시를 잇는 모든 곳이 고객 경험의 대상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은 이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해가 지날 때마다 가전 시장 양대 축인 삼성·LG전자의 전시 내용에서 로봇, 모빌

리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대차, SK그룹 등 다른 대기업의 전략 신제품을 살펴봐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삼성전자는 TV, 가전에서 모바일 제품을 아울러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개념인 ‘팀삼성’을 내세웠다. 삼성전자 부스 가장 앞쪽에 배치된 ‘팀삼성존’에선 스마트기기 연결성을 통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삼성 독자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아바타’도 공개된다. 삼성전자의 AI 아바타는 온디바이스(On-Device) 대화 인식, 사물인터넷 가전 제어 기능을 갖췄다. 특정 플랫폼 내에서 집을 하나의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세계로 형상화하면, AI 아바타는 현실 세계에서의 고객 위치를 초광역 위치 인식 기술로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스마트 기기가 자동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다.

LG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스 규모를 대폭 줄였지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가전 생태계의 유기성을 부각한다.

오프라인 부스 공간에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해 LG 올레드 TV, LG 오

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 냉장고, LG 티온(LG tiium) 등 주요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공간에선 제페토, 로블록스, 모여봐요 동물의 숲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관람객이 자유롭게 제품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SK텔레콤은 회의, 발표, 출장 등 탄소발생을 유발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가상 세계에서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를 선보인다.

사용자 연결 공간은 집으로 그치지 않고 자동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영역으로까지 나아간다. 삼성전자는 IT·가전기술과 자회사 하만의 전장 기술을 접목한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선보인다. 증강현실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운전자 상태에 따라 차량 환경을 변화시켜 최적의 몸 상태로 운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연결성을 통한 사용자 경험 개선 시도는 해외 기업에서도 엿보인다. 중국 기업 TCL은 올해 행사에서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전 제품군을 소개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노우리 기자 we1228@ 라스베이거스(미국)=유창욱 기자 woogi@

## 용두사미 된 사모펀드운용사 전수조사

금감원, 올해 서면방식 도입  
“기한 맞춰 실적 쌓기” 비판

금융 당국의 전문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가 ‘수박 겉핥기’ 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사와 제재가 모두 끝난 10곳 중 6개 운용사에서 부실이 드러나 제재를 했으면서도 조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서면 방식까지 도입해 실적 쌓기식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2019년 라임과 옵티머스 등의 환대 연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부실 경영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4일 이투데이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수 조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4곳(18.9%)의 검사를 끝냈다. 최종 결론을 낸 곳은 23개사였다. 이 중 14개사(약 61%)가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전문사모펀드 운용사 23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

고 우려한다.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2022년 전문사모운용 전담 검사단 계획서’를 보면 올해부터 현장검사와 서면검사를 병행기로 했다. 이를 통해 70여 곳 이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단도 현장검사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전문사모운용 전담 검사단 한 관계자는 “서면으로 하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준다. 사실상 서면검사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 가서 논의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항이 나오기도 한다”며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무리하게 정해 놓은 조사 기간을 맞추려는 의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금감원은 계획서에 2023년까지 약 3년 4개월간 233개사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2017~2018년 연간 50~60개의 운용사를 검사했던 경험을 근거로 삼았다.

검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이 한 곳의 현장검사를 하려면 총 5명씩 나간다. 한 곳 검사하는 데 거의 한 달이 걸린다”며 “만약에 문책 사항이 인지되면 제재 절차로 들어간다. 표준처리 기간을 152일로 두고 이내에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명의 검사단으로는 한계란 얘기다.

이민희 기자 nancho0907@

# “미안합니다... 쌓이는 빚 때문에 동맹휴업 못 해요”

“집단휴업은 우리에게 죽으라는 의미다.”

4일 오전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의는 격론장이 됐다. 이미 지난달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8개 소상공인 단체가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동맹휴업안은 결국 부결됐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영업중단을 시위 수단으로 삼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점등시위를 하며 영업 의지를 드러내기로 했다.

코자총은 이날 동맹휴업안에 대한 일시와 기간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4개 단체의 반대로 결국 휴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한국유희음식업 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 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총자영업국민연합 등 8개 단체가 가입한 연합회다. 이 중 한국외식업 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한국프랜차

자영업자 대출 1인당 3.5억 달해 “집단휴업, 우리에게 죽으라는 것” 코자총 안전, 일부 반대로 부결 자대위 ‘점등시위’로 의지 이어가

이즈산업협회 등 4곳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 곳은 기권했다. 앞서 지난달 코자총은 집단휴업을 예고했지만 정작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2차 투표에선 의견이 갈리며 휴업은 불발됐다.

이들 단체가 강력한 단체행동을 예고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건 빚으로 버틸 만큼 한계에 몰린 절망적인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2%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은 평균 3억5000만 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 원)에 비해 4배에 달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황보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 참담하다. 우리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한다는 데엔



4일 서울 한 식당 창문에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은 손님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 뉴스시스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영업 중단 시 받을 타격이 너무 큰 게 사실이다. 집단휴업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는 하소연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영업 중단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을 불편함, 집단휴업이 정부 당국과의 소통과정에서 자칫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6일부터 점등시위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오후 9시 이후 가게 간

판과 영업장 내에 불을 켜는 방식이다. 시위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자대위 역시 집단휴업에 들어갈 경우 타격이 적지 않고 모든 자영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 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정부의 지원안이 그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결국 빚 내라는 정책”이라는 평가절하도 여전하다.

이들 두 단체는 모두 다음주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자대위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먼저 집회를 연다.

코자총은 신청 인원 20만 명을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진행한다. 집단휴업이 불발된 대신 손실보상금 확대를 추구하고, 동시에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집단휴업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자대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선전포고했다. 코자총 관계자도 “더 이상 집합금지 없어야 한다는 계획의 전체의 주요 내용”이라며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AMOREPACIFIC

매년 똑같은 선물이 대신  
선물은 센스있게  
슈퍼콜라겐 에센스

SUPER COLLAGEN  
signature edition

VITALBEAUTIE

## 길어진 ‘원격수업’ 떨어진 ‘학습격차’ ‘공부 스트레스’ 더 커졌다

교육평가원, 초·중생 설문조사 “신학기 교육 불평등 대책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가 등교 수업보다 더 커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교현장에서는 향후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해 6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학생 총 1만 958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학교 원격수업에서의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탐색’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원격으로 진행된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떨어졌고, 학습 스트레스는 등교 수업보다 더 커졌다.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는지’ 5점 척도로 답하는 문항에서 초등학교생의 등교 수업 이해도는 평균 4.47점이었던 반면, 원격 수업은 3.89점에 그쳤다. 중학생도 과목별 원격 수업 이해도가 등교 수업에 비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다.

원격 수업은 학생들의 집중력도 떨어뜨렸다. 초등학교생의 등교 수업 집중도는 4.29점이었지만, 원격 수업은 3.60점으로 0.69점 낮았다. 중학생의 과목별 집중도는 국어 3.58점(등교 4.15점), 수학 3.46점(등교 4.00점), 영어 3.54점(등교 4.04점) 등에 그쳤다.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수업 시간에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느끼는 ‘학습 스트레스’는 원격 수업 일 때 0.02~0.11점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학습습관 문제가 기초 학력 부진이나 학습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올해 신학기에든 전면 등교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겨울방학 기간에 학습습관 문제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습동기가 떨어진 학생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 교육당국의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방역당국 “면역 저하자, 4차접종 검토”

위중증환자 1000명 아래로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중증환자가 보름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감소세와 고령층 3차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의 영향이다. 이에 방역당국이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검토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일 이후 사흘째 3000명대다. 재원 중인 위중·중증환자는 974명으로 42명 줄며 감소세를 지속했다. 위중·중증환자가 1000명 미만을 기록한 건 지난달 20일(997명) 이후 15일 만이다.

위중·중증환자 감소는 확진자 증가세 둔화와 예방접종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4119.7명으로 전주(5626.6)보다 1506.9명(26.8%) 줄었다. 여기에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지난달 28일 71.6%에서 이날 78.3%로 올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확진자 중 3차 접종 완료자는 1.8%였으나, 위중·중증환자 중 비중은 0.4%, 사망자 중 비중은 0.3%에 불과했다.

신규 확진자 및 위중·중증환자 감소로 병상 여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40년 주담대’ 4개월 새 7배 쏙... 내친김에 50년짜리도?

4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4개월 만에 7배 넘게 늘어났다.

대출 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에도 집값 상승기에 저금리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활용해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초장기 주담대 이용 대상 확대와 만기가 40년을 초과하는 초장기 모기지 개발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4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주금공 2021년 경영혁신사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만기 40년 초장기 주담대가 출시 4개월 만인 11월 공급 비중(건수 기준)이 16.8%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40년 만기 주담대가 출시된 7월의 비중은 2.3%에 불과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초장기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늘며 무려 14.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40년 만기 상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80%에 육박했던 30년 만기 주담대의 비중은 11월 기준 66.0%까지 떨어졌다. 7월 30년 만기 주담대의 비중은 77.8%를 기록했다.

20년 이하 만기 상품의 비중은 7월 20.0%에서 11월 17.3%로 오히려 2.7%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모기지 상품을 지난해 7월 시범 도입했다. 기존 보증자리

상품 비중 2.3%→16.8% ‘인기’ ‘30년 만기’는 77.8%서 66%로 이용자 10명 중 9명 ‘만족한다’ 모든 보증자리론으로 확대 검토 ‘40년 초과 상품’ 신설도 고민 중

론 만기가 최장 30년이었지만 이보다 만기를 10년 더 늘려 대출자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리 차등과 대상자 선별로 가계부채 증가 위험을 최소화시켰다. 만기 연장으로 한도를 증액하는 효과도 있다.

예컨대 연 2.5% 금리에 3억 원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매달 갚아야 할 돈은 119만 원이지만, 만기가 10년 늘어나면 매달 상환액은 99만 원으로 16%가량 줄어든다. 또,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보증자리론으로 3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지만,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한도가 5000만 원 늘어난다.

초장기 보증자리론의 만족도도 높음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중 만족한다는 응답은 90.4%에 달했다. 추천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92.9%였다.

초장기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주금공은 모든 보증자리론 이용자가 40년 만기 선택이 가능하도록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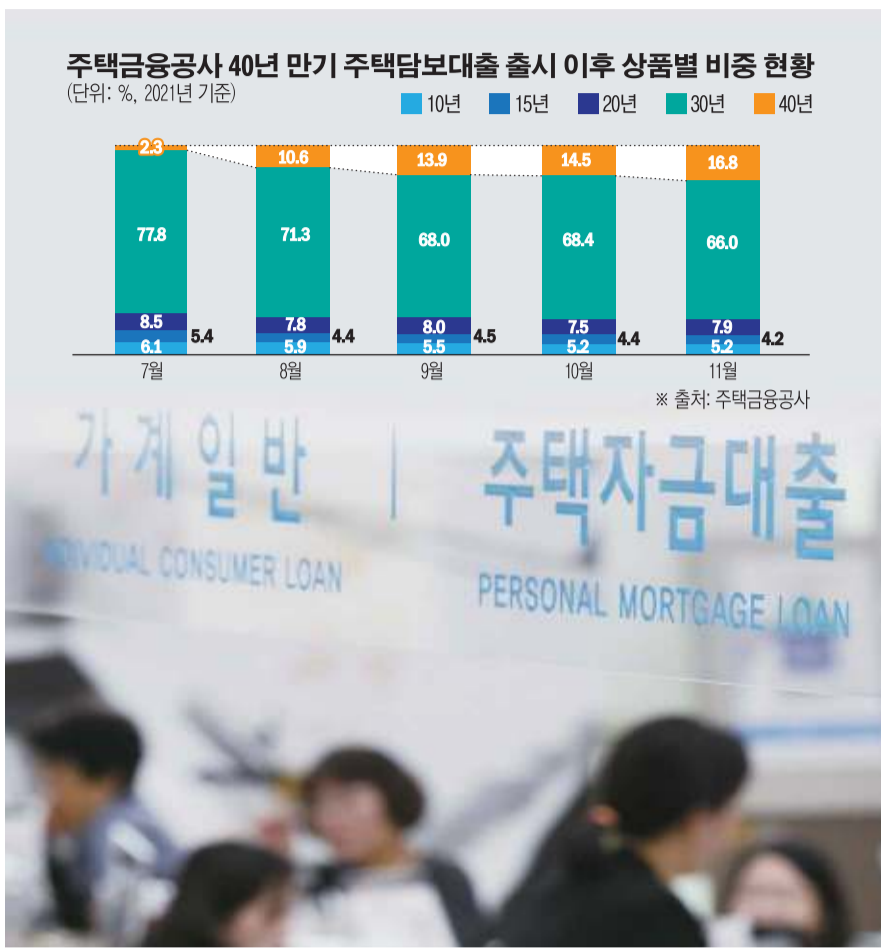
하기로 했다. 40년 초과 대출 만기 신설로 상환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초장기 채권이 발달한 미국 등에서는 만기가 40~50년인 모기지가 가능하지만, 이와 달리 국내에선 20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대한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아 당장 40년을 초과하는 모기지가 당장 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혁신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이라면서 “당장(40년 초과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는 50년 만기 모기지론도 있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옛날에는 10년물 국채를 상상하기 힘들었으나 지금은 30년 국채도 나온다”면서 “상황이 바뀌면 또(50년 모기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50년 모기지가 나온다면 정부의 ‘대출 국가 보증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미국주식거래 아침 10시까지 자유롭다!

업계 최초! 미국 애프터마켓 거래시간 4시간 제공  
바쁜 출근 시간에도 2시간 더 여유 있게 매매할 자유!  
미국 주식, 제대로 하시려면 나무를 시작할 때입니다

**나무 추천하고! 해외주식 받고! EVENT**  
나무 계좌가 없는 친구에게 나무를 소개해주세요. 나무가 쓰는 해외 주식을 친구가 받으면 소개하신 고객님께도 해외 주식 1주를 드립니다!  
(단, 1인 1회 한정)

**NA MUH 모바일증권 나무**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5043호(2021-11-02~2022-11-01)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선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시 수수료는 0.25%(미국, 온라인 기준, 국가별 상이), 수수료외에 미국주식 매도시 SEC Fee 0.00051%가 부과되며(국가별 상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0% 비대면 주담대 성공 힘들 것” ‘카뱅 전제’ 나선 시중은행

“완전 비대면은 상품 운용 한계” 카뱅, 직원 채용·테스터 모집 등 1분기 출시 목표로 막바지 작업

카카오뱅크가 1분기 출시를 예고한 주택담보대출을 향해 시중은행의 견제 목소리가 높다. 담보 대출은 심사 능력을 갖춘 직원이 필요한 대면 업무인 만큼 비대면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카뱅은 7일까지 주택담보대출 테스트를 모집 중이다. 주담대 출시를 앞두고 실수요자로부터 개선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범위에서 최대 6억3000만 원이다. 최소 대출신청 가능 금액은 2000만 원이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에 있는 9억 원 이하(KB시세 기준) 아파트다. 대출 기간은 5·15·25·35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연 2.984~3.473%, 혼합금리는 연 3.601%~3.802%로 제시했다. 다만 이 금리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금리 상승기를 고려하면 실제 상품이 출시될 때 금리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 방식으로 담보 대출 업무를 취급해 온 시중은행들은 카뱅의 비대면 주담대 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담대는 대출자의 주택 소유 여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데이터를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까다로

운 심사 업무인데, 비대면으로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의 연장선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도 난제로 꼽았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의 비대면화는 무척 어렵다”며 “상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감독 방향과 정부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뀌어 그 내용을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접속 화면에 반영하려면 몇 달씩 걸려 감독과 규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도 “신규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점검할 게 너무 많은데 대출 신청자의 주택 수를 따져야 하고, 당사자가 기준에 가진 대출 금액, 추가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사도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체크해야 할 부분이 계속 바뀌어서 완벽한 비대면은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카뱅 측은 주담대 관련 경력자를 확보하는 등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뱅은 작년 8월 담보대출 운영, 담보대출 운영지원 분야의 경력자를 모집했다. 금융권에서 4년 이상 주담대 상품을 취급한 경력을 필수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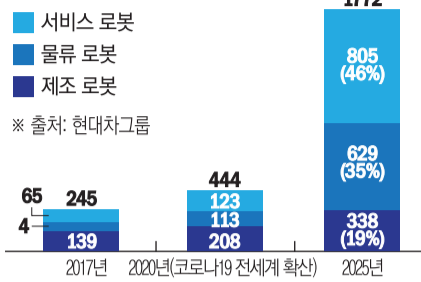
서지희 기자 jhsseo@

# 밥상 차리고 배송까지... 삼성도 현대차도 '로봇 사랑'

## 인공지능 접목 신제품 경쟁

삼성전자, AI 기술 기반 '삼성봇' 현대차,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로봇 시장 2025년 211조 전망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 추이 (단위: 억달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2'에서 최신 로봇 기술과 비전을 비중 있게 공개한다. 향후 로봇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의 투자와 연구개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서 국내 다수 기업은 로봇을 주요 신제품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독자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삼성봇'을 선보인다. 인터랙션 로봇인 '삼성봇 아이'와 가사 보조 로봇인 '삼성봇 핸디'가 주인공이다. 두 로봇은 사용자의 영상 회의를 준비하거나 저녁 식사를 위한 상을 차리는 등의 시나리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봇 아이는 이번 CES에서 처음 공개되는 로봇이다. 사용자 곁에서 함께 이동하며 보조하는 기능과 원격지에서 사용자가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텔레프레즌스

기능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2년 전 'CES 2020'에 참석해 첨단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로봇 '볼리'를 최초로 공개한 뒤 돌봄 로봇인 '삼성봇 케어', 가사도우미 '삼성봇 핸디' 등 로봇 제품군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에서 기존의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TF)팀을 로봇사업팀으로 격상하며 조직도 재정비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로봇,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AI) 등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로봇을 CES 주제로 선정하고 그룹의 로보틱스(로봇공학) 비전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로봇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CES 2022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인터랙션 로봇인 '삼성봇 아이'와 'AI 아이바타', 가사 보조 로봇인 '삼성봇 핸디'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보행 로봇 스폿이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내부로 오가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폼 '모베드'와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로봇 제품군도 일반에 공개한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래에 그룹의 사업 분야에서 로봇이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 회장은 직접 사재를 투입해 미국의 유명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등 그룹 차원의 투자를 이어왔다.

LG전자는 클로이 가이드봇, 클로이 서브봇, 실내의 통합배송 로봇 등 5G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로봇이 사람과 공존하며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일상을 소개한다.

두산은 두산로보틱스를 앞세워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공개한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협동 로봇을 연간 1000대 이상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며 로봇 사업의 가능성을 이미 증명했다. 두산로보틱스는 경쟁력을 인정받아 프렉시스캐피탈 파트너스와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4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로봇의 상용화가 다가오며 글로벌 로봇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2017년 245억 달러(약 29조 원) 수준이던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2%를 기록하며 2020년 444억 달러(약

53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32%를 기록하며 1772억 달러(약 21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로봇 기술이 적용된 다른 산업을 제외한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제조 로봇만의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서 생산, 비용 효율을 위해 로봇을 채택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소득과 위생을 위한 로봇 도입의 필요성도 증가했다"며 "대기업도 가능성을 알아본 만큼, 관련 투자와 연구 개발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미국)=유창욱 기자 woogi@

## 베일 벗은 삼성 '갤S21 FE'

### '카툰' 줄여 매끈... 프리미엄급 성능에 가격도 착해

후면 카메라에 컨투어 컷 적용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 탑재

"갤럭시 팬에디션(FE) 제품 반응이 좋아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도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갤럭시 S21 FE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는 내부의 기대가 많다."

김승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3일(현지 시간) 미국 프로풋볼(NFL)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홈구장인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갤럭시S21 FE(팬에디션) 5G' 제품 출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갤럭시S21 FE는 삼성전자가 내놓

은 두 번째 팬 에디션 시리즈다.

갤럭시S21 FE의 첫인상은 '매끈하고 깔끔하다'였다. 갤럭시S21과 동일한 강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외관이 크게 다를 것 없었지만, 메인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 뒷면과 동일한 소재·색상으로 완전히 통합돼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을 줬다.

갤럭시S21 FE는 올리브, 라벤더, 화이트, 그래파이트 총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라벤더와 올리브 색상 제품의 경우 파스텔 톤을 입어 한결 산뜻하게 느껴졌다. 후면 카메라가 매끄럽게 이어져 일체감을 주는 컨투어 컷(Contour Cut) 프레임이 적용돼 '카툰'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모양)에 대한 거부감도 적었다.

성능에도 힘을 준 게 눈에 띄었다.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갤럭시S21에 탑재된 것과 같은 엑시노스 2100,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쓴다. 240Hz의 터치 응답률과 120Hz 주사율, 6.4형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 등을 갖춰 고사양 게임이나 동영상 이용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카메라는 갤럭시S21 대비 화소 수는 낮아졌지만, 강화된 AI 페이스 복원(AI Face Restoration) 기능, 듀얼 레코딩 기능을 갖춰 다른 플래그십 제품에 탑재된 카메라 장점들이 고루 포함됐다.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로, 오히려 울트라 버전을 제외한 기존 플래그십보다 화소 수가 더 높아 셀피(자작 사진)나 브이로그를 많이 찍는 사용자에게 적합하다고 느껴졌다.

김 상무는 "FE 시리즈의 주 가격대인 500~600달러대 스마트폰은 가장 많은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 등의 요인으로 11일 1차 출시국은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 등 100여 개국에 한정될 전망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노우리 기자 we1228@



3일 미국 프로풋볼(NFL) 구장인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갤럭시S21 FE 5G' 제품 출시 행사.

## '팀 삼성' TV·가전·모바일 하나로 잇는다

IoT 기술로 고객경험 차별화

삼성전자는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CES 2022)에서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하고, 고객 경험을 연결하는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삼성전자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마련한 쇼윈도 콘셉트의 미디어 월은 참가 업체 중 가장 넓은 3596㎡(약 1088평) 규모의 전시관이다. 최신 활

영 기법과 디스플레이를 통해 마치 여러 개의 쇼윈도가 눈 앞에 펼쳐진 듯한 광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팀삼성'에선 △'IoT 허브' 기능으로 간편하게 스마트 홈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2022년형 스마트 TV △사용자의 선호도와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를 분석해 최적의 레시피를 추천해 주고 조리기와 연결해 주는 '스마트싱싱 쿠킹' △최대 2개월간의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워주는 '스마트싱싱 에너지' 등이 방문객을 맞이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4일 진행되는 CES 2022 기조연설에서도 새로운 콘셉트의 신제품을 전격 공개한다. TV를 설치하기 어려운 공간에 '나만의 스크린'을 만들어 주는 독특한 콘셉트의 제품과 급격히 성장하는 게이밍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폼팩터의 스크린이 주인공이다. 또 현존 최고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해 출시한 '마이크로 LED' 110형에 이어 101형과 89형 2개 모델도 최초로 공개한다. 홈엔터테인먼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스마트 허브', 대체불가토큰(NFT) 콘텐츠를 구매하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NFT 플랫폼'도 소개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노우리 기자 we1228@

## SK E&S 첫 참가



SK관에 전시되는 '플러그파워(Plug Power)'의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GenDrive(젠드라이브) 3000' 제품. 사진제공 SK E&S

### 친환경 수소체인 전략 발표 글로벌 탄소감축 해법 제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전시

SK E&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2'에 참가해 글로벌 탄소감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SK E&S는 SK(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등 SK 관계사들과 '탄소감축'을 주제로 공동 전시에 나선다.

SK그룹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는 SK E&S는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친환경 수소 밸류체인 구축 전략을 소개한다. 또 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업과 기술을 전시한다.

SK E&S는 2025년까지 부생수소 바탕의 액화수소 3만 톤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청정수소 25만 톤(액화 5만 톤, 기화 20만 톤) 등 연간 28만 톤의 수소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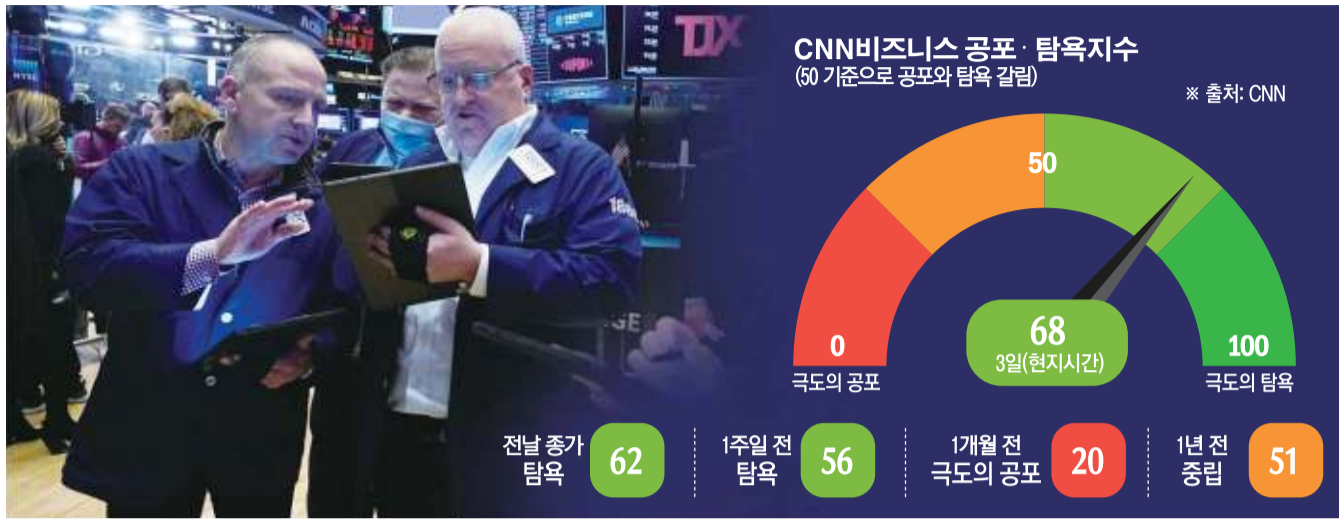
이다. 생산한 수소는 액화수소 충전소 약 100곳과 파이프라인을 통해 각 수요처에 공급한다. 승용차, 버스, 지게차, 드론 등 각종 모빌리티와 연료전지 발전소까지 수요처를 대폭 확대해 수소 생태계의 조기 구축을 돕고, 더 나아가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을 추진하는 내용도 전시한다.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솔루션 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 전략도 선보인다.

특히 SK E&S는 이번 'CES 2022'에서 글로벌 수소 사업 파트너사인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공동 전시를 한다. 플러그파워가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젠드라이브(GenDrive) 3000' 제품을 실물 전시한다.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은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이 높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낙관론 넘어 '극도의 탐욕'... 美 증시, 새해부터 호령

다우·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오미크론·금리인상 우려 적어  
CNN '공포·탐욕지수' 대전환  
전문가 "올 주가 11% 상승" 전망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들이 객장에서 서로 논의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미국 뉴욕증시가 올해 첫 거래일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날아올랐다. 해는 바뀌었지만, 지난해 연말 '산타렐리'의 여운이 이어지면서 연초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장 변수에 대한 공포보다는 '탐욕'이 더 커진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다우지수를 비롯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 안팎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 상승세를 견인할 만한 재료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낙관론이 '탐욕'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이날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CNN비즈니스 공포·탐욕지수' 중 일부가 '극도의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7가지 지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모두 공포 수준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 △안전 피난처 수요 △시장 모멘텀 △정크본드 수요 등 3개 지표가 '극도의 탐욕'으로 방향을 180도 전환했다.

실제로 최근 20일간 주식수익률이 채권보다 7.7%포인트 초과상승해, 채권 대비

주식의 성과가 2년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정크본드(투기 등급 고위험 채권) 수익률과 투자등급 채권 간의 스프레드(금리차이)가 1.70%포인트로 줄어들 정도로 정크본드 수요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레드는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2%포인트대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말부터 1%대로 떨어졌

다. 금리와 채권 수요(가격)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군의 자산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오미크론의 경제적 충격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

한 시장의 우려 역시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이 지난달 시사한 대로 긴축 행보가 진행된다면 미국은 이르면 2개월 뒤에 3년 만의 첫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금 선물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대로 점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올해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체적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레피티티브 집계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올해 S&P500이 약 11%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수석 경제고문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연준의) 더 공격적인 대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연준이 수요는 다소 완화하고 공급은 이를 뒷받침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하강'을 얼마나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국내 상장사 10곳 중 9곳, 올해 실적 '장밋빛'

삼성전자, 영업이익 4.4% 증가  
카카오 '1兆 클럽' 가입 가능성  
조선·항공株 적자 탈출 기대

2022년 영업이익 개선폭이 큰 종목				
(단위: 원) ※ 2021년·2022년 추정치, 추정기관 수 3곳이상 집계 기준 ※출처: 에프엔가이드				
	종목명	2021년	2022년	전년동기 증감률
코스피	솔루스첨단소재	124억	728억	486.2%
	화승엔터프라이즈	206억	1010억	391.2%
	아시아나항공	553억	2040억	268.7%
	엠씨넥스	228억	830억	264.7%
	솔루엠	325억	913억	181.4%
코스닥	인텔리안테크	2억	168억	6900.0%
	감성코퍼레이션	6억	90억	1405.5%
	필어비스	404억	3705억	816.4%
	RFHIC	56억	298억	429.6%
	엘앤에프	390억	1389억	255.9%
시총상위	삼성전자	52조8345억	55조1609억	4.4%
	SK하이닉스	12조3460억	12조8033억	3.7%
	네이버	1조3653억	1조7487억	28.1%
	삼성바이오로직스	5506억	6425억	16.7%
	카카오	7012억	1조840억	54.6%
	LG화학	5조4969억	5조1194억	-6.9%
	현대차	7조1006억	8조398억	13.2%
	삼성SDI	1조2277억	1조6775억	36.6%
	기아	5조3961억	5조9988억	11.2%
	셀트리온	7792억	9157억	17.5%

올해 국내 상장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뒀던 상장기업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올해 선방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전망치가 존재하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85곳 중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은 247곳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전체의 87%에 달한다.

다만, 작년 초 전망치 93%(256곳)보다는 하락했다.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 비율이 작년보다는 올해 소폭 감소했다는 뜻이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솔루스첨단소재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작년 추정치 124억 원에서 영업이익이 올해 486.2% 늘어난 72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승엔터프라이즈(391.2%), 아시아나항공(268.7%), 엠씨넥스(264.7%), 솔루엠(181.4%) 등도 지난해보다 올해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 기업 가운데는 인텔리안테크의 영업이익이 작년 전망치 대비 6900% 늘어난 168억 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감성코퍼레이션(1405.5%), 필어비스(816.4%), RFHIC(429.6%), 엘앤에프(255.9%) 등의 실적개선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대부분 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총 1위 삼성전

자의 영업이익은 작년 추정치 52조 8345억 원에서 2조3000억 원가량 늘어난 55조1609억 원으로 추정된다. 증감률은 4.4%다.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4.6%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어 삼성SDI(36.6%), 네이버(28.1%), 셀트리온(17.5%), 삼성바이오로직스(16.7%), 현대차(13.2%), 기아(11.2%) 등의 순으로 2차전지, IT플랫폼, 제약·바이오,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둔 LG화학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9%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조선주들의 실적개선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현대미포조선, 한국조

## 애플, 시총 3兆달러 첫 돌파 日 도쿄증시 시총 절반 육박

전기차 진출 등 성장 기대감 상승  
비트코인 상승률마저 웃돌아  
대형 하이테크 쏠림현상 우려도



애플이 과속지세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마침내 세계 최초 시가총액 3조 달러(약 3580조 원)라는 이정표를 새로 썼다.

3일(현지시간) 애플은 나스닥시장에서 182.86달러로 오르면서 사상 처음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장종 182.88달러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점을 찍는 장면도 있었다.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어 증가 기준으로는 2조9860억 달러로 3조 달러 턱 밑에서 마감했다. 그러나 4년 만에 기업가치가 3배 올랐다. 애플은 창립 38년 만인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 뒤로 2년 만인 2020년 8월 미국 기업으로는 처음 2조 달러를 돌파했다.

피부와와 닿지는 않지만 3조 달러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특히 일개 기업인 애플 시총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1부 종목 시총의 절반에 육박하게 됐다. 이는 곧 세계 3위 경제국 일본의 대기업 절반과 맞먹는 기업가치를 보유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주가는 전년 대비 40% 이상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가상자산(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상승률(38%)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해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에도 대장주 비트코인 상승세를 넘어선 것이다.

견실한 재무기반과 매출 성장세는 물론 전기자동차 진출 가능성과 함께 성장 기대가 높아진 것이 주가 상승세로 이어졌다. 특히 성장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애플은 지난해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21일 풍부한 유동성과 견고한 실적을 근거로 애플의 신용등급을 'Aaa'로 상향했다. S&P500지수 편입 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MS)와 존슨앤드

존슨(J&J)에 이어 세 번째로 '트리플 A'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전 세계 10억 명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아이폰은 약 2년의 교체주기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애플뮤직, 애플TV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 매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금을 비롯한 가처분 자산은 19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만큼 자사주 매입과 배당 여력이 크다는 이야기다.

월가에서도 애플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애플의 목표주가를 164달러에서 200달러로 끌어올렸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헤드셋과 같은 신제품이 아직 애플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뉴욕증시에서 대형 하이테크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애플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애플과 MS, 아마존, 알파벳(구글), 테슬라, 메타(페이스북) 등 하이테크 6개사 시총 합계는 S&P500 종목 전체에서 약 25% 비중을 차지한다. 애플의 비중만 놓고 보면 7%에 달한다. 미국 증시는 주가 연동의 패시브 상품을 중심으로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유동성이 계속 유입되는 환경인데 그만큼 지수가 소수의 빅테크 종목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좋아하는 노래 맘껏 부르고 토큰 보상까지 '일석이조'

#애플리케이션 내 주간 차트를 열었다. IVE(아이브)의 'ELEVEN(일레븐)'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다. 솔로 부르기를 선택 하자 음원이 재생됐다. 가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자 3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녹음이 완료되자 싱크·볼륨조절 창으로 넘어갔다.

다시 듣는 목소리가 민망해 마이페이지에 저장만 해놓기로 했다. 이 한 곡만 다른 사람들은 29일 오후 1시 기준 1만952번을 불러 공유했다. 녹음한 노래를 포스팅으로 올리면 코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노래에 대한 댓글을 받으며 다른 유저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었다.

솔로가 아닌 듀엣도 가능하다. 듀엣 편집 기능을 통해 파트를 지정하고 상대를 구하면 된다. 고음이 어려운 유저들은 고음을 비워 놓고, 랩이 어려운 유저들은 랩을 비워 놓는 방식이다.

노래에 가치를 부여하는 코인, '썸싱'의 이야기다.

## ⑦ 썸싱

지금 기록한 것이 아무도 모르게 내일 사라질 수 있고, 오늘 작성 목록에 없던 것이 내일 새겨질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단기간 내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코인 시장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거래소 상장으로 돈이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가상자산은 현재 '화폐'라는 이름이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화폐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코인 리포트' 시리즈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코인 중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현물과 연동이 되는 코인만 조명하고자 합니다. 기획에 등장하는 회사는 본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지에 이들 회사가 사전 협조를 요청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적이 없음을 알립니다.

하루 평균 최대 2200곡 포스팅 첫 1주일에 토큰으로 후원하면 업로드 종료 후 20% 할당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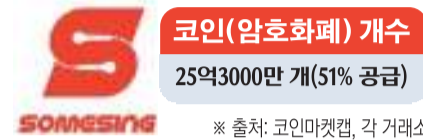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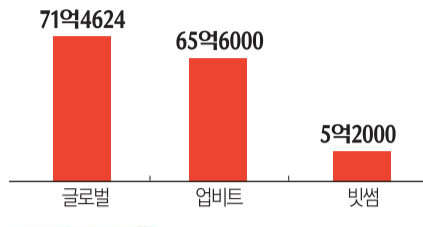
이렇게 하루에 2000~2200곡이 포스팅된다. 하루평균 총 1만~1만5000곡이 녹음되는데, 이 중 일부만이 포스팅되는 셈이다. 듀엣곡의 비율은 60~70% 정도다. 포스팅된 모든 콘텐츠는 2주간 노출된다. 2주 중

1주 차에 토큰을 통해 후원하는 사람들은 '후원자'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후원들은 선물로 반영된다. 후원자들은 초기 콘텐츠 활성화의 기여자로, 게시 기간이 끝난 후 토큰 분배 시 일정 비율을 할당받는다.

크리에이터는 50%의 토큰을 할당받는다. 20%는 '후원자'에게, 나머지 30%는 썸싱이 매출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 30% 안에서 저작권, 음원 비용,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개인 지갑을 통한 후원 및 분배 내역은 블록체인을 통해 모두 기록된

## 썸싱 거래 현황

(단위: 만 원, 29일 오후 15시 기준)



다. 썸싱은 이와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포인트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썸싱이 구축한 플랫폼 위에서 뛰노는 건 유저들이다. 싱어(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소통한다. 내부적인 커뮤니티에도 '팸(온라인상으로 엮인 가족)'이 존재한다. 닉네임 앞에 IN, BOX, SsF 등을 붙여 소속을 표시한다. 해당 팸에서

노래를 올리면 같이 가서 듀엣을 하거나, 솔로곡을 올리면 서로를 소환해 칭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썸싱을 이용하는 월 활성화 사용자(MAU)는 10만 명이 넘어간다. 다운로드 수는 109만을 훌쩍 넘겼고, 그간 유저들이 부른 노래의 수는 761만8000곡을 돌파했다. 후원 등이 기록된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1163만5000건을 넘겼다.

향후 탄탄한 유저를 바탕으로 틱톡(TikTok)과 손을 잡는다는 구상이다. 썸싱에서 유저들에 의해 생산된 15초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노래 콘텐츠 '싱클립(SingClip)'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썸싱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틱톡으로 포스팅하거나 직접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썸싱과 틱톡의 듀엣 기능을 활용, 파트를 나눠 부르거나 기타연주 삽입, 댄스 챌린지 등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 “유저들 SING나게 놀 수 있게 허들 낮추자”

김효식 마케팅 총괄이사  
반주·목소리 싱크 실시간 조정  
개인별 최적화로 서비스 품질 ↑

“블록체인이 사용자들에게 허들이 되지 않았으면 했다. 일반적인 노래방 앱 서비스로 즐겼으면 했다. 토큰이다 코인이다 블록체인이다 생각하기보다 유저들이 들어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SING나게 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김효식(사진) 썸싱 마케팅 총괄이사(CGBO-Chief Global Biz Officer)는 최근 이투데이와 만나 썸싱의 철학에 대

해 이처럼 밝혔다. 김 이사는 2019년 3월, 썸싱 초창기부터 함께한 멤버이다. 육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노래를 부르던 아내가 썸싱 테스트 버전의 파워 유저였다. 음질 튜닝, 신기능을 개발하며 유저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김희배 대표와 연이 닿았다. 그렇게 썸싱의 비전에 공감한 김 이사가 썸싱에 합류했다.

자연스레 썸싱은 태동기부터 음질에 관심을 쏟았다. 모든 노래방 앱들이 고질적으로 가지는 문제는 싱크 차이다. 반주보다 목소리가 밀려서 나오는, '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썸싱은 반주와 목소리 싱크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이사는 “아무리 토큰 이코노미가 좋아도 서비스가 엉망이면 안 된다는 철학에 따라, 음질 튜닝에만 1년 이상 개발진이 매달렸다”며 “이외에도 성량, 목소리 톤이 유저마다 다르다 보니 개인별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배 대표는 약 7년간 모바일 노래방 앱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TJ미디어와 제휴, KARUSO라는 앱을 운영한 경험이 보탬이 됐다. 무료로 몇 개의 곡을 불러본 유저들은 월정액 과금이 들어가는 순간 약 70~80%가 이탈했다. 노래방 앱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던 중, 토큰 이코노미를 접합해 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김 이사는 “100곡이든 200곡이든 노래 듣기와 미리 듣기까지 무료로 제공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마음에 드는 콘텐츠가 나오면 본인 지갑에 저장할 때 5000원 상당의 토큰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엔터테인먼트사들과도 협

업을 이어왔다. 글로벌 팬덤이 많은 아티스트가 듀엣 선창을 올려놓으면, 팬 수천, 수백 명이 함께 듀엣곡에 참여해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다.

김 이사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노래의 특성을 발판삼아 글로벌 확장도 준비 중이다.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보탬이 됐다. 한국에서의 사업 경험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동남아 시장을 먼저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래방(가라오케) 문화에 서양보다 비교적 가까운 국가부터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했다.

썸싱 내에 있는 유저들의 IP를 활용,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또한 계획 중이다. 유저들이 생산하는 음악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가상 공간에서 가상 캐릭터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AI 모델 또한 구상 중이다.

박소은 기자 gogumee@

THE HYUNDAI

## 현대백화점과 함께 행복한 2022 임인년(壬寅年)을 시작하세요!

설 선물 최대 30% 예약 할인 12.24 - 1.13

2022년 새해 첫 세일 1.2 - 1.16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mall | 현대백화점명세점 | 한성 | 더한성닷컴 | H패션몰 | 현대리바트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이서관

설 선물 디지털 특선집

+ 더 쉽고 편안한, 새로운 금융



# Do the 'Green' Thing

국내 금융업계 최초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평가  
7년 연속 리더십 A 획득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  
탄소중립전략 발표

국내 최초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 가입

국내 최초  
글로벌 탄소중립 은행연합  
창립멤버

Shinhan



아시아 민간금융그룹 최초  
2021 유엔기후변화총회 탄소중립 전략발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국가의 저탄소 경제 가속화에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친환경 금융의 기준을 전파하고  
친환경 금융을 이끌어 갑니다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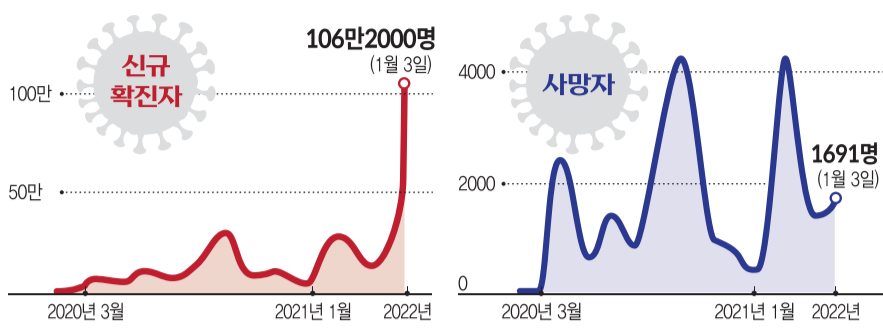
# 美 ‘초고속 감염’ 하루 확진자 첫 100만명 돌파

### ‘59만명’ 나흘 만에 두 배로 ↑ 입원 환자도 10만명 어린이 확진자 급증 우려 커져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입원 환자 수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어 미국이 코로나 확산 쇼크에 빠졌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6만2000명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12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발생을 처음 보고한

미국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 ※출처: 블룸버그



이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도 무섭다. 지난 달 31일 하루 확진자 59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불과 나흘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다른 국가들이 기록한 사상 최고치와 비

교해도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미국 이외 국가 중에서는 델타 변이 직격탄을 맞은 인도가 지난해 5월 7일 41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규 확진자 집계는 자택에서 이뤄진 자가 검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감염자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하루 입원 환자 수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날 입원 환자 수가 10만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입원 환자 수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1월 14일 14만2000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하다가 9월 11일 마지막으로 10만 명을 넘겼고, 11월 초 4만5000명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달 27일 7만1000명까지 늘었고 불과 일주일 만에 10만 명대를 넘어섰다.

일부 주에서 어린이의 입원이 급증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어린이 입원 환자 수가 지난해 초 대비 3배가량 늘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도 어린이 입원자가 일주일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주 어린이

입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아 이 같은 ‘쇼크’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미국 내 백신 미접종자 비중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실제 입원 환자는 백신 미접종자가 많았다.

미국베일리의과대학의 국립열대의학대학원 학장인 피터 호테즈는 “오미크론이 그냥 가벼운 바이러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며 “미 전역의 백신 미접종률, 특히 어린이 접종률이 저조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돌연변이 46개” 佛서 새 변이 발견

### 아프리카 카메룬서 유입 추정 오미크론보다 변이 수는 적어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3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지역에서 12명이 새 변이에 감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 변이는 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친 여행자로부터 변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변이는 46개의 돌연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변이는 50개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항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에만 32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존재한다. 통상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한다.

이번 새 변이를 검출한 프랑스 마르세유 IHU 지중해 감염연구센터는 변이 이름을 ‘B.1.640.2’로 지었다. 이들은 트위터에 새 변이 발견 사실을 올렸다.

새 변이의 위험 정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동료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연구팀은 “새로운 변종이 발

견됐다고 해서 알파, 델타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새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처럼 전파력이 높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 변이가 우세종으로 프랑스에 전파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과거 알파, 베타, 람다, 감마, 뮤 등 수많은 변이가 나타났지만 결국 전염력이 강한 델타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새 변이가 카메룬을 거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아프리카 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접종률이 낮은 나라 중심으로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역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그 존재를 확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아프리카 인구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앨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CNN에 “아프리카의 외딴 지역에는 백신 접종 인프라가 부족하다. 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백신접종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아 기자 ljh@



美 해군 첫 여성 항모 함장 탄생 에이미 바우언슈미트 미국 해군 대령이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우언슈미트 대령은 1775년 창설된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항공모함 함장으로, 니미츠클급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맡게 됐다. 바우언슈미트 대령은 과거 헬기 해상타격대에서 근무하는 등 지금까지 총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자랑한다. 바우언슈미트 대령은 “국가를 보호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보다 더한 책임감은 없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로이터연합뉴스

## “OTS, 한국史와 점점... 경제 형제國 기대”

### OTTS 사무총장 서면 인터뷰 터키·카자흐스탄 등 5개국 연맹 터르크 국가 국제무대 진출 가교 회원국 중심, 경제적 협력 원해

프랑스어권이 프랑스어사용국가기구(프랑코포니)를 만든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난화와 전염병, 테러리즘, 극단주의와 같은 현대적인 도전 앞에서 터르크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기구 명칭을 바꿈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권한과 역할을 늘리고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8차 정상회담은 터르크계 국가들뿐 아니라 이들과 교류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관심을 끌었다”며 “미국이

나 중국, 인도, 아랍권 국가로부터 피드백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의 협력 기대감도 전했다. 그는 “한국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라며 “회원국 모두 터키와 한국이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에서 얻은 사회적 우정 외에도 알타이 역사와 기원을 공유하는 등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아시아 내 대규모 한인 공동체들도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비롯한 일각에선 특정 민족이 협력하는 것을 두고 극단적 민족주의로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중국은 주민 대부분이 터르크계로 구성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인권 문제가 부상하자 “위구르족은 돌궐족의 후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세력 강화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알레예프 사무총장은 “OTS는 민족주의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 매우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어느 국가에도 비밀스러운 의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회원국에 이익이 되는 경제와 교통을 중심으로 탄탄한 형제국가를 융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어권이 프랑스어사용국가기구(프랑코포니)를 만든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난화와 전염병, 테러리즘, 극단주의와 같은 현대적인 도전 앞에서 터르크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기구 명칭을 바꿈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권한과 역할을 늘리고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8차 정상회담은 터르크계 국가들뿐 아니라 이들과 교류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관심을 끌었다”며 “미국이

나 중국, 인도, 아랍권 국가로부터 피드백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의 협력 기대감도 전했다. 그는 “한국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라며 “회원국 모두 터키와 한국이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에서 얻은 사회적 우정 외에도 알타이 역사와 기원을 공유하는 등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아시아 내 대규모 한인 공동체들도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비롯한 일각에선 특정 민족이 협력하는 것을 두고 극단적 민족주의로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중국은 주민 대부분이 터르크계로 구성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인권 문제가 부상하자 “위구르족은 돌궐족의 후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세력 강화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알레예프 사무총장은 “OTS는 민족주의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 매우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어느 국가에도 비밀스러운 의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회원국에 이익이 되는 경제와 교통을 중심으로 탄탄한 형제국가를 융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코인 비관론자’ 달리오마저 “가상자산 샀다”

### 연준 긴축·메타버스 향배 가를 것

최근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공개하는 억만장자들이 늘고 있다. 그간 비트코인 비관론을 펼치던 억만장자도 돌연 투자자로 돌아섰다.

3일(현지시간) 보유 자산이 250억 달러(약 30조 원)에 달하는 유명 억만장자 토머스 피터피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정화폐가 ‘지옥’이 될 수 있다”며 “보유 자산의 2~3%를 가상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현명하다”고 밝혔다.

불과 2017년까지만 해도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비트코인이 자본시장에 미칠 위험에 대한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가상자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높은 수익성에 동의했다. 그는 “제도가 될 수도, 백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역시 비트코인 옹호

론자로 돌아섰다. 그 역시 한때 비트코인은 가치 없다며 비판했던 인물이다. 최근 보유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갖고 있다고 밝힌 달리오는 심지어 “현금은 쓰레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튜더 인베스트먼트 설립자 폴 튜더 역시 최근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고, 골드만삭스의 패밀리 오피스 절반가량은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메타버스 성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타버스 활성화는 비트코인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 성장에도 움을 줄 수 있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서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위험 선호 심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이재명 “대규모 택지 개발 공약 설 이전 발표”

기아차 공장서 신년 기자회견  
경인선·1호선 등 지하화 가능성  
“그린벨트 해제 필요하다면 검토”  
1인당 50만원, 30조 추경 추진  
전국민재난지원금 카드 또 꺼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설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대규모 택지 개발 공약 발표를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조 원 지원 여전히 말씀하시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도 시기의 문제지 절치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는 추경 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빛 늘려 국민 지원하느냐는 야당과 보수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는 걸로 임한다”고 낙관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 후보 주문에 따라 이달 내 3차 당정협의를 열어 구체적 추경 내용과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원 방식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를 제시하며 “현재 국민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지원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평균)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에 맞춰야 한다”며 “(그래서 1인당 50만 원 추가 지원 기

준) 25조 원을 말했던 것”이라고 추경 목표 규모를 30조 원가량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본지 기자 질문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 대규모 택지 공급 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설 전에는 아마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택지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를 단절시키는 지상의 철도·도로를 정비하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대상이다.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그린벨트를 해제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포·성남공항이전과 경인선·1호선 등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포공항 이전은 당 내외 반발이 심해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철도 지하화 등이 채택될 공산이 크다는 게 복수의 관계자들 전언이다. 이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이 후보는 경선 때 경쟁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행보에도 공을 들였다. 내용을 겪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대비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 정 전 총리와 나란히 섰다. 후원회장을 맡은 정 전 총리는 이 후보를 추켜세웠고 이 후보는 스스로를 ‘정세균계’라고 화답했다.

5일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광주광역시를 찾는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 비전회의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

김윤호 기자 uknow@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방명록을 쓰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해찬 싱크탱크>

## ‘이해찬 효과’ 올라탄 이재명, 선대위에 ‘광장’ 심는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다시 여의도에 등장했다.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광장’의 후신인 ‘선대위산하 미래광장위원회(미래광장위)’ 출범식에 참석했다. 친노무현·친문재계계 ‘좌장’ 격인 이 전 대표가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그간 이 전 대표 마음을 여는데 공을 들였다. 이 전 대표가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김메이커’로 통한다. 진보 진영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라는 세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 지난해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해찬 쟁탈전’을 벌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문 진영의 마음도 그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도 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 ‘광장’을 주목했다. 지난해 5월 대선 경선부터 이재명 후보는 ‘광장’을 이어받아 전국단위 지원조직 ‘민주평화광장’으로 개편했다. 당시 민주평화광장이 있었기에 이 후보는 이 전 대표 등판 없이도 조용한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날 출범식 벽면에는 ‘다시 광장으로!’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핵심 가치도 닮았다. 민주평화광장은 이 전 대표가 이끈 ‘광장’의 가치와 민주당의 ‘민주’ 경기도의 도정 가치인 ‘평화’를 키워드로 꼽는다. ‘광장’에 뿌리 둔 ‘민주평화광장’은 이날 선대위 산하 미래광장위로 재탄생했다. 이 후보는 축사를 통해 미래광장위원회에 ‘민주·평화·공정’을 꼽으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으로 가기 위한 비

전자 민주당을 지탱해온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해찬계 의원들도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5선 조정식의원이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에 이어 미래광장위 공동상임위원장도 맡았다.

이 전 대표도 적극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광주·전남 일정에는 직접 참석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최근 내용을 겪는 국민의힘과 달리 단합된 모습으로 ‘원팀’을 굳힌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이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제가 당정 협의하면서 주택, 교통 문제 등 정책으로 많이 논의해봤는데 굉장히 탁월한 식견과 준비를 매우 잘한 후보”라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얽히고설킨 ‘윤석열·김종인·이준석’...이면엔 파워게임?

尹 입당부터 ‘이준석 패싱’ 논란  
金 영입하면서 전권 부여엔 난색  
金·李는 소통...尹·李는 엇박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풀기 어려운 ‘4차 방정식’이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때마다 견제하는 묘한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입당한 건 지난해 7월30일이다. 당시 윤 후보의 입당은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윤 후보는 당 지도부의 지방 일정을 몰랐고 이 대표는 당황했다. 두 사람의 불통은 ‘이준석 패싱’ 논란과 함께 갈등의 단초가 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두 사람의 갈등과 불합은 반복됐다. 윤 후보는 지난해 8월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주최한 행사에 불참, 경준위가 준비한 토론회에 불만을 간접 표출했다. 또 다시 당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

다. 최종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도 윤 후보 측은 당 대표와 일정을 공유하지 않아 오해를 샀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30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간 이유다. 전화기까지 꺼냈다. 당시 이 대표는 직접 ‘패싱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후보 일정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에 협조 안 한다,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제 입장에서 황당하다.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주, 울산 등으로 숨바꼭질하며 잠행을 이어간지 나흘 만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사흘 앞두고서야 윤 후보와의 갈등을 풀었다. 윤 후보가 사실상 유세를 중단하고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울산을 찾은 덕분이다. 장고 중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김 위원장의 합류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7월부터 직·간접적인 소통을 이어온 김 위원장과 윤 후보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윤 후보의 속내는 ‘김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김 위원장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각각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대위 출범 한달도 안 돼 조직은 삐걱거렸고, 이 대표는 결국 지난달 21일 “미련 없다”며 선대위 모든 직을 내려놨다.

이 대표 사퇴 등 선대위 내용으로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전권을 이어받은 김 위원장은 조직 쇄신을 결단했고,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이 윤 후보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기만 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김 위원장의 선대위 쇄신 결단은 이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온 방향과 일치한다. 한 마디로 선대위 슬림화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배제가 핵심이다. 윤 후보측 인사들이 이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이다.

세 사람의 꼬인 관계의 이면에는 결국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사상 초유의 2무2유 대선

2無 호남 출신·중앙 정치 경험  
2有 비호감 후보에 진영 대결

사상초유의 2무2유 대선

64일 남겨둔 20대 대통령 선거의 풍경은 과거 대선과는 판이하다. 호남 출신 후보 부재로 역대 선거 때마다 위력을 발휘했던 영호남 대결구도는 사라졌고 유력후보 모두 중앙 정치 경험이 없다. 반면 최악의 진영 대결, 최고의 비호감 후보 등은 새로운 현상이다.

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호남 출신 후보는 없다. 치열한 영남과 호남 지역대결 구도로 가던 후보들의 출신 지역이 다양하다. 후보 5인 출신지를 보면 서울(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경기(심상정 정의당 후보), 충청(김동연 새로운미래 후보), 경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산(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이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윤 후보

는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중앙정치 초년병,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정치신인이다. 거대 양당 후보의 중앙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대선에선 볼 수 없는 악재들까지 발생하자 20대 대선은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최악의 진영 대결이 펼쳐지고 있으며, 양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신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두 후보는 ‘절대로 뽑지 않을 후보’를 묻는 이른바 ‘적극적 비호감도’ 조사에서도 각축을 벌였다. 이 후보를 뽑은 응답자는 35.1%, 윤 후보는 32.2%였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진영 대결이 이 정도로 극대화 된 적은 처음이며,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았던 적도 없다”며 “이전 대선보다 개선된 점은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호감 대선 분위기에 정권교체 회의론도 팽배해지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

론조사전문기관 ‘여론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31일과 1일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45.4%, ‘민주당으로 정권연장’ 응답은 40.5%였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조사에서 정권교체 53.8%, 정권연장 32.7%로 여론 격차가 21.1%p 달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좁혀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합과 쇄신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후보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위한 국민통합’을 강조했고 사실상 해체를 결단한 윤 후보 선대위는 ‘쇄신’이 불가피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식재료값보다 인건비·배달료가 외식물가 인상 압박

원재료, 외식비 상승 30%만 영향  
“변동폭 커 그때그때 반영 어려워”  
가격 떨어질 때도 외식물가 그대로

이투데이가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품목별 연간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상관·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축산물 등 원재료값 상승은 외식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원재료값이 하락해도 외식물가는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먼저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외식물가 상승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축산물과 가공식품은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P) 높아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외식물가 상승률을 각각 0.25%P, 0.42%P 높였다. 단, 외

식물가 변화량에서 두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설명량, R<sup>2</sup>)은 30%를 밑돌았다. 외식물가 변화량의 70% 이상이 원재료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다.

원재료 물가의 외식물가 기여도가 낮은 건 원재료가 외식물가의 ‘상승압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품목별 물가 상승률이 집계된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산물과 축산물은 각각 9차례 ‘마이너스(연간)’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외식물가 상승률은 모두 올랐다. 월간 통계(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전체 농·축·수산물물은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차례의 하락기(3개월 이상 연속 하락)기를 겪었다. 1987년 2월에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6.5% 급락했다. 그럼에도 같은 달 외식물가는 4.3% 상승한 데 이어 3개월 뒤 5.5%까지 올랐다.

이는 한 번 오른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 외식물가의 ‘관성’으로 볼 수 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을 책정할 때 장기 추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거기에 원재료뿐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 변동 폭이 큰 원재료가를 그때그때 음식값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재료 등의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외식물가 상승률은 오르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외식물가를 내리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외식물가 상승 속도가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 측 외식물가 상승요인으로는 상가 임대료와 인건비, 기타 영업비용 등이 있다. 이 중 인건비가 외식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을 활용하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은 건 상가 임대료와 기타 영업비용인데, 두 요인은 시계열로 추계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주문증개수수료·배달료 등 인상이 외식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

외식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수요다. 1999년 11개월 연속(1~11월) 외식물가 하락도 외환위기 여파로 수요가 위축된 결과였다. 수요는 최근 들어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음식점 카드 매출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8월 -14.8%에서 9월 4.9%로 증가 전환한 이후 11월 11.7%, 12월(1~18일) 47.1%까지 확대됐다.

수요 증가는 두 측면에서 외식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는 초과수요 발생에 따른 가격 상승이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수요 급증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는 늘어난 수요의 배달업 등 유통업에 따른 독과점 심화다. 특정 배달업 이용이 늘면 독과점 형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수수료·배달료 등 결정에서 협상력을 잃게 된다. 이는 수수료·배달료 인상, 인상분 음식값 반영에 따른 추가적인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 측 요인이나 방역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최근 유행성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청년 구직자 17만명 최대 300만원 받는다

국민 50만명 구직촉진수당 지급  
청년, 중위소득 120%까지 대상  
조기 취업 성공 시 수당 50만원

올해 취업취약계층 50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이중 청년 구직자 17만 명이상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1만 명 늘어난 총 60만 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비인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정망이다. 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는 50만 명이다. 올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것이다. 이중 청년(특례) 지원 인원이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유형은 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선발형에 포함된 청년 특례 지원 인원은 17만 명이다. 요건심사형에 신청한 청년까지 포함하면 ‘17만 명+α’가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요건심사형은 올해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 50%(1인 가구 97만2406원·4인 가구 256만540원)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자격요건과 동일하고, 청년(18~34세)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4인 가구 563만3188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취업역량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참여자에게 일경험 입사 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등 모의 지원 등 구직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 직무 소양의 숙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참여자 과제 부여 등을 통해 밀착관리·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한해 50만9000명의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이중 34만1000명(청년 21만1000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구직촉진수당은 주로 생활비·구직활동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CJ대한통운 택배 8일째 파업

민주노총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원들이 4일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상한 택배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나섰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그린도시 2곳 선정 5년간 400억 투입

정부가 지역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정에 나선다. 선정 도시에는 5년간 400억 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정부는 올해를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은 만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중심의 이행과 확산체계 구축을 위해 처음으로 사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모델)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지자체에 대한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지자체 2곳을 선정한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고, 동반 상승 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1곳당 사업 규모는 약 400억 원이며 이중 240억 원(60%)은 국고, 160억 원은 지방비로 투입된다.

이번 공모에는 광역지자체별로 해당 기초지자체와 연계해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만 신청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김범석 쿠팡 의장 ‘규제’받나...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검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일감몰아주기 적용 만지작  
앱 플랫폼 M&A 심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이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

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결정해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동일인 관련 제도 정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공정위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5월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외국인 총수 지정이 가능해지느냐는 질문에 “관련해 가장 큰 현안은 쿠팡인데, 연구용역 결과와 작년 5월 1일 지정 이후 쿠팡에 어떤 사정 변화가 있는지 충분

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따라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계열사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 지원하는 등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 공개를 매출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하고, 상표권 사용 거

래와 관련한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또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모바일·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자사 우대, 앱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인수·합병(M&A)은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신한금융지주 회장>

# 조용병 “쫄직원 셀프 리더십 갖춰야 ‘一流 신한’ 대전환”

그룹 경영진 ‘신한경영포럼’  
“공감·돌파 통해 난관 극복”

진옥동 행장 4일 워크숍에서  
“WHY는 고객과 미래” 강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이 새로운 핵심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를 행동 기준으로 삼아 ‘일류 신한’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조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신한이 직면한 대내외 난관을 극복하고자 의미의 ‘돌파(Breakthrough)’와 신한 문화 대전환(RE:Boot)의 궁극적 가치인 ‘셀프 리더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22년 경영 슬로건으로 ‘돌파(Breakthrough) 2022, 리부트(RE:Boot) 신한’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공감’과 ‘돌파’를 통해 완성하는 조직의 모습은 신입 직원부터 임원까지 창의성과 주도성을 갖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하는 ‘셀프 리더십’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룹사 최고경영자(CEO)와 현장 직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셀프 리더십’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고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한 리뷰와 올해의 경영환경 및 그룹의 전략 방향을 영상으로 살펴봤다.

한편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4일 서울 중구에 있는 본점에서 1분기 임원, 본부장 워크숍에서 “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서 우리의 와이(WHY)는 고객과 미래다”라며 “일의 의미를 고객 관점에서 찾고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진 은행장은 이날 사이먼 시넥의 저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나오는 ‘골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2022년 신한경영포럼'에 참석해 올해 경영 슬로건으로 '돌파 2022, 리부트 신한'을 제시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서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열의와 성취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의 방법으로 왓(WHAT)은 실천의 결과물, 하우(HOW)는 실천방법, 와이는 미션, 일의 의미”라며 “왓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

면 그 특징은 잘 전달할 수 있지만,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는 반면 와이를 먼저 설명하면 감정을 자극해 하우와 왓, 즉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출시한 ‘뽕겨요’ 플랫폼

을 통해 가맹점, 소비자, 라이더 모두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고객의 와이”라며 “고객의 와이에서 시작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프로토콜 경제 생태계로 뽕겨요를 구축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와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와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한이 선배들이 해 오던 방식”이라면서 “와이를 알고 행동하는 직원들의 진심은 고객 감동과 신화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며 “와이를 전파하는데 열성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은행장은 “결국, 우리의 와이는 ‘고객’과 ‘미래’다. 애자일조직, 뉴플랫폼, 채널전략 등 올해 사업도 고객과 미래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Way 2.0의 핵심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를 △바르게! 고객에게 바르게! △빠르게!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다르게! 고객의 솔루션을 다르게! 등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서지연 기자 sjy@

## “개인 자산·신용정보 한눈에” 오늘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417개사 API 방식 정보 제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이 전면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일 오후 4시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2월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확성 제고, 사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했다. 이 시범운영에는 은행과 금융투자, 카드, 핀테크사 등 33개사가 참여했다.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사업자는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크래핑은 전면 금지된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으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점

이 있었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단,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국제정 국제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제·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 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DB·DC), 카드 청구예정정보 등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를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술·담배 작년 지출액 12兆 ‘사상 최대’

<1~3분기 누적>

거리두기 강화에 혼술족 ↑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요즘 집에서 마시는 술이 늘었다. 편의점 1만 원짜리 맥주 4캔은 퇴근길 필수품이 됐다. 와인, 막걸리 등 주종을 가리지 않고 술을 쥘어 놓는다. 박 씨는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밖에서 술 먹는 일이 줄었다”며 “재밌는 일이 없다 보니 집에서 TV를 보면서 술 마시는 게 취미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술과 담배 지출액이 5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적 피로와 우울감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장 내 취식 금지가 ‘혼술(혼자 술 마시기)’·‘홈술(집에서 술마

시기)’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1~3분기 누적)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가운데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은 12조7556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던 2020년 같은 기간 12조5926억 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51년 동안 가장 높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봐도 작년 3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가운데 주류·담배 소비액은 4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가량 늘었다. 특히 술을 사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류 지출은 2만 원으로 같은 기간 12.3% 증가했다.

국민이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쓰는 돈이 늘고 있는 데에는 팍팍해진 경기가 배

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그림자가 드리우던 1997년 1분기에는 술과 담배에 1조6895억 원이 쓰여 한 해 전보다 20%나 지출액이 급증했다. 그해 2분기도 18.6% 늘어난 1조6930억 원이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쓰였다.

한편 오락·스포츠 및 문화 등 여가활동에 쓴 돈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3분기 오락·스포츠 문화 소비지출은 14조4403억 원이었다. 2분기(14조4317억 원)와 비슷한 수준인데,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16조7147억 원)와 비교하면 한 분기 동안 쓴 돈의 규모가 2조 원가량 적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오락과 스포츠문화 성장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는 상황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015년 수준인 14조 원대에 머물렀다. 송영록 기자 syr@

## 신한카드, 금융 플랫폼 첫 ‘My NFT’ 서비스

신한카드는 국내 금융 플랫폼으로는 처음으로 대체불가토큰(NFT)을 적용한 ‘My NFT’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카드 고객이라면 자신이 소장한 물건이나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NFT로 등록하고, 신한pLay(신한플레이)를 통해 등록된 NFT를 조회할 수 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글로벌 NFT 플랫폼과 연결과 확장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의 전문기업 ‘블록오디세이’와 협업했다. NFT의 거래와 유통은 안 되며 NFT 생성과 조회만 가능하다.

향후 신한카드는 NFT를 활용하는 기업과 플랫폼들과의 연결을 통해 생태계를 지속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략적 제휴관계인 번개장터와 스니커즈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의 정품 인증을 위한 NFT 서비스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제조·유통사들과도 플랫폼 연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향후 고객의 비금융 자산 및 소중한 물건과 추억까지도 간직할 수 있는 생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우리銀, 123주년 기념 高금리 ‘1·2·3 패키지’

입출금 1%·예금 2%·적금 3%

우리은행은 창립 123주년을 기념해 고객의 자산형성을 위한 ‘1·2·3 패키지 상품(1% 입출금 통장·2%대 예금·3%대 적금)’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1% 입출금 통장은 1000만 원 이하 최고 연 1% 금리를 제공하는 입출식 통장인 우리WON파킹 통장으로, 비대면 전용 상품

이다. 2%대 예금은 ‘우리고객님 고맙습니다 예금’으로 기본금리 1.63%에 우대금리 0.40%를 더해 최고 2.03%를 제공한다.

3%대 적금은 기본금리 2.60%에 우대금리 0.50%포인트를 더해 최고 3.10%를 제공하는 고금리 적금 ‘우리(영업점명) 적금’이다. 이 적금은 영업점별 특판 적금이며, 영업점별로 우대조건이 다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교보생명 ‘구조조정’ 희망퇴직 286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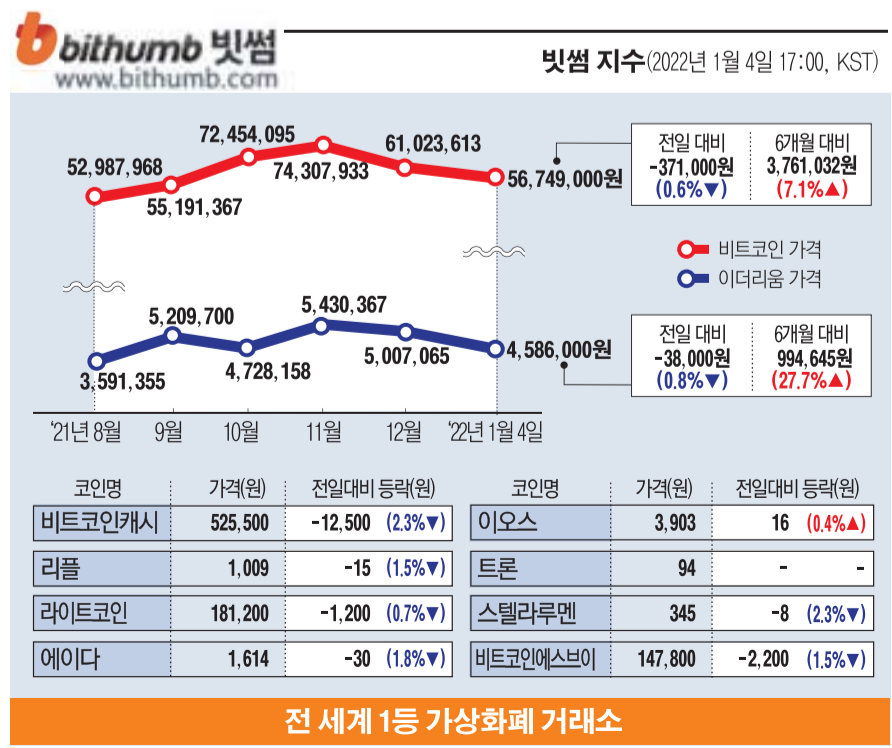
교보생명은 입사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상시특별퇴직에 319명이 신청했으며, 심사협의를 거쳐 286명의 퇴직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상시특별퇴직자들에게는 기본급 48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자녀장학금과 전직 지원금 등 직급에 따라 최대 4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보생명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창업·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현재 상시특별퇴직 확정자 중 200명이 신청을 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상시특별퇴직을 통해 인사 적체가 일부 해소되고, 업무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퇴직 위로금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퇴직자들이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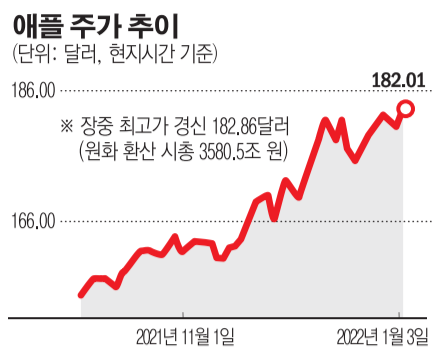
〈시가총액 기준〉

# 더 커진 애플... 삼성전자의 8배 '이유 있는 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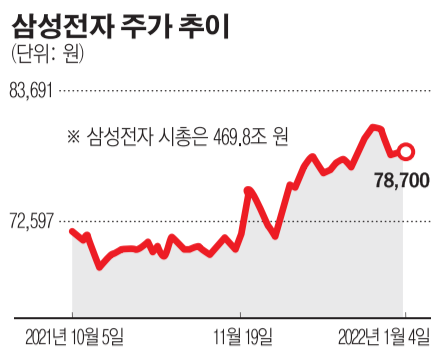
애플 3분기 매출 29% 오를 때 삼성은 반도체·스마트폰 고전 현재진행형 오너 사법리스크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돼야

애플이 더 크고 달콤해졌다. 미국 애플이 3일(현지 시각) 뉴욕 증시에서 장 중 시가총액(기업가치) 3조 달러(약 3580조 원)를 돌파했다. 고(故) 스티브 잡스가 실리콘밸리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한 지 46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 실적에도 주가가 '침만전자'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7.6배 정도 애플이 크다. 반도체 칩 부족, 금리 상승 전망으로 일부 우려가 제기되지만, 애플 제품의 세계적인 인기와 꾸준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신제품의 잠재력, 회사의 강력한 현금보유력에 초점을 맞춰 투자자들이 '애플 매수-삼성전자 매도' 전략을 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 양사의 주가를 보면 애플보다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양사의 순이익과 영업이익

률, 현금보유액 등을 고려하면 두 회사 간 시가총액 격차는 '이유 있다'는 분석이다. ◇이유 있는 양사 간 시총 격차 = 최근 스마트폰 분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한 모습이지만 현재와 미래 실적에 근거해 주가를 판단하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양사의 시총 격차가 '이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체력에서 차이가 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매출액 73조9800억 원을 기록했다. 애플은 지난해 3분기 작년 동기과 견줘 29% 증가하며 834억 달러(약 97조 50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현금보유액에서도 두 기업의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애플의 현금보유액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무려 1955억7000만(약 234조 원) 달러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현금보유액은 1144억 달러(약 131조 원)다. 현금성 자산만 놓고 봤을 때, 애플이 약 2배 더 많은 자본금을 가진 셈이다. 삼성전자가 기를 펴지 못한 데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놓였기 때문이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은 대만 TSMC와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TSMC와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세 배(TSMC 53.1%, 삼성 17.1%)에 달하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잇따라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다. 스마트폰 사업은 더 심각하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이 0%대에 머물렀다.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애플에 밀리고, 중저가폰 시장에서도 중국 샤오미와 오포·비보는 물론 원플러스·리얼미까지 전 세계에서 삼성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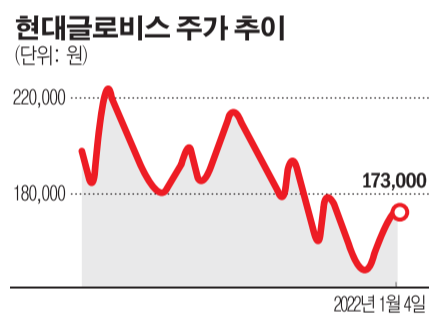
유율을 갉아먹고 있다. 2013-17년 3억 대 이상이던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8년엔 2억9200만 대, 지난해엔 2억5500만 대로 줄었다. 그나마 3세대 폴더블폰이 시장의 호평을 받으며 선방하고 있다. ◇오너 리스크 딛고 '10만전자' 갈까 = "사람들에게 자동차와 애플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포기할 것이다. 애플 주식이 엄청나게 싸다."(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삼성전자가 애플 시총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결론을 얘기하면 '넘사벽(넘볼 수 없는 사치원의 벽)'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오너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지난 4년간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석

방-재수감-가석방'이 이어지면서 최고 경영진이 기술·시장 리더십 강화에 적극 나설 수 없는 분위기였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새로운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오너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도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 차이를 빚어내는 요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남북 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요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로 점쳐졌지만, 요즘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국내 기업 생산 환경이 원인으로 대두된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될 것으로 본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유안타증권도 목표주가를 11만8000원으로 유지했다. 이수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2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52조 7000억 원에서 58조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 업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추가로 삼성 파운드리 실적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 기초체력 키운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언제?

3분기 호실적 4분기도 청신호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총수 일가 지분 매각 가능성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적 등 기초체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에 짓눌려 있다. 4일 현대글로비스는 전 거래일 보다 0.29% 오른 17만3000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초 기록한 52주 최고가(23만 5000원)와 아직 격차가 있다. 같은 해 6월 중 21만 원 선까지 반등했으나 11월 말에는 52주 최저가(14만4000원)로 떨어졌다. 실적은 좋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3분기 매출액 5조4040억 원과 영업이익 3149억 원을 올렸다. 2020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3%, 95.1% 증가한 것이다. 4분기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져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실적 예상치는 매출액 5조4696억 원, 영



업이익 2951억 원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이 3108억 원으로 시장 기대를 뛰어넘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버행 우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상장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준이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졌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이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3.29%의 지분을 들고 있다. 아버지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지분(6.71%)까지 더하면 29.99%에 달한

다. 이에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돼 있다. 규제를 피할 방법은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총수 일가 지분을 낮추는 것이다. 업계는 물류를 책임지는 현대글로비스가 내부거래를 낮추긴 어려운 만큼 총수 일가의 주식 매각이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 회장 부자가 주식을 내다 판 사례가 있는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2170주(지분 13.39%)를 시간 외 대량매매로 팔았다. 만약 매각이 이뤄지면 주가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마저 불안해질 수 있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라온 체력이 주가에 반영될 때"라면서도 "다만 대주주의 지분이 출회될 가능성이 리스크(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글로비스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대글로비스는 배터리 및 수소경제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주기도 점진적으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재 기자 sangjae@

## 포스코 "자회사 상장할 때 특별결의"

정관 신설해 날치기 상장 방지 포스코가 자회사 상장을 할 경우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신설했다. 4일 포스코는 회사분할 계획서의 분할 신설회사 정관에 '분할 신설회사인 포스코(가칭)가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경우 단독주주인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9.75%)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씨티은행 7.3%, 우리사주조합 1.4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스코 혹은 포스코 대주주 담합에 의한 날치기식 자회사 상장은 어렵게 됐다. 포스코의 이번 특별결의는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를 떼어내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100% 소유하는 물적분할 형태로 신설 철강사 법인(포스코)을 만드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포스코 측은 "향후 신설되는 철강사 법인은 비상장사로 놔두고 상장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8일 임시주총에서 최종 확정된다. 물적분할은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기업분할 형태를 말한다.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포스코를 비롯해 LG화학, 씨제이이엔엠 등이 핵심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밝힌 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들이 일어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물적분할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최근 여야 대선 후보까지 나서 자본시장 개혁 공약으로 물적분할에 따른 개인투자자 이슈를 거론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이슈는 여러 부분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 상장사 경영진 절반 "주식투자 늘려 인플레이 대응"

삼성증권 924개 법인 설문조사 69.2% "올해 경영 환경 악화"

국내 상장기업 경영진들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부담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투자형 자산을 늘려 대응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인택트 씨닷컴' 법인고객 등 9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의 21.3%는 올해 가장 큰 고민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인플레이션이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

비율은 55.6%에 달했다. 이어 '재정 지출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 '금리 인상' 등이 경제 요인으로 지목됐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 중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고,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담(14.4%)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응답자 중 69.2%가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79.2%였고, 3%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한 응답자는 60.1%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3.1%)과 물가상승률(2.2%)보다 비판적으로 경기를 전망

하고 있다는 얘기가. 올해 인플레이션과 어두운 경기 전망에 대응할 투자자산으로 경영진들은 '투자형 자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6%가 주식과 비상장주식 등 투자형 자산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국내의 채권(19.7%), 구조화 상품(10.4%)이 뒤를 이었고, 현금과 금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9.0%, 7.3%에 그쳤다. 투자 지역으로는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2.6%로, 국내 주식(37.9%)보다 높았다. 삼성증권은 국내 주식이 최선호 자산이었던 지난해와 다른 결과로, 경영진의 금융자산 투자 판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 SK바사 임원 5명 자사주 팔아치웠다

50억여치 처분... "무책임" 비판 SK바이오사이언스 임원들이 연말 자사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 관련 업계와 소액주주들은 "기업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는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임원 5명은 지난달 말 보유한 주식 50억 원여치를 처분했다. 진병관완체생산실장(26억6401만3740원어치), 최용성 재무실장(15억8981만7120원어치) 등이 각각 주식을 처분했다. 주식 매도는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2021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직계 보유분 합산 기준) 보유한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3억 원 이상 2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일각에선 임원들의 주식 대량 매도를 두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증권가에선 임원의 주식 매도를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상장 한 달 만에 류영준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진 8명이 900억 원어치 보유 주식 전량을 팔아치워 이른바 '떡튀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매도 물량의 경우 2018년 비상장 시절 받은 주식"이라며 "주가가 크게 올랐고, 개인 판단에 의한 매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LG “경쟁자이지만… 삼성 OLED TV시장 진출 환영”

## 박형세 HE본부장 간담회

LG전자가 삼성전자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TV 시장 진출에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박형세 LG전자HE(휴먼테레인먼트)사업본부장은 4일 열린 LG전자HE사업본부장 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일 삼성전자가 참여한다면 OLED TV 시장·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사용해 OLED TV를 만들 것이라는 ‘삼성전자-LGD OLED 동맹설’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LG전자는 2022년형 올레드(OLED) TV 라인업과 차세대 자발광 TV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 전략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LG전자는 F.U.N(First·앞선, Unique·독특한, New·새로운)의 관점에서 고객 경험(CX)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LG 올레드 TV의 차원이 다른 화질과 디자인을 앞세워 새로운

“OLED TV 생태계 확장 긍정적 화질 등 고객경험 혁신 주도할 것”

세계 최대 97형·최소 42형 추가 업계 최다 TV 제품 라인업 구축 프리미엄·세컨드 수요 공략 박차

감동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올해 올레드 TV 97형, 42형을 추가하며 97·88·83·77·65·55·48·42형에 이르는 업계 최다 라인업을 구축한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크기인 97형(대각선 길이 약 246cm) 올레드 TV로 초대형 시청 경험을 원하는 프리미엄 수요층을 겨냥하고, 세계 최소 42형(대각선 길이 약 106cm) 올레드 TV로는 기존 48형 올레드 TV와 함께 세컨드 TV·게이밍 TV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LG전자 독자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한 ‘LG 올레드 예보’



LG전자가 4일 공개한 2022년형 ‘LG OLED TV’ 라인업(왼쪽).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이 글로벌 유튜브 채널 공개 영상을 통해 TV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OLED evo)의 라인업을 지난해 1개 시리즈 3개 모델(77·65·55G1)에서 2개 시리즈 11개 모델(97·83·77·65·55G2, 83·77·65·55·48·42C2)로 대폭 늘린다.

LG전자의 올해 TV 사업전략 핵심은 ‘고객 경험’이다. 백선필 LG전자 TV CX 담당 상무는 “TV를 통해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이 더욱 늘어난 만큼 (향상된 프로세서 등을 통한) 선명한 영상과 몰입도 높은 사

운드를 제공하는 등 고객 경험에 더욱 신경 썼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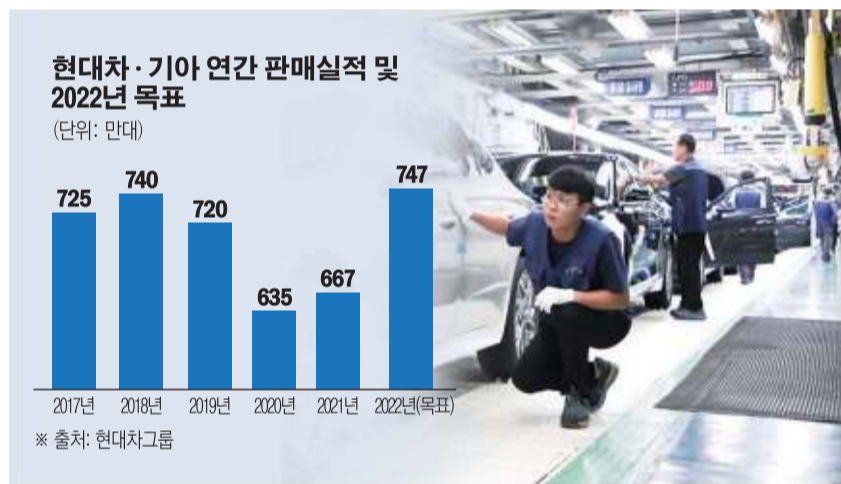
LG전자가 10년간 올레드 TV의 화질·음질 데이터 및 노하우를 집약한 ‘AI 알고 9 프로세서’는 5세대까지 진화하며 고객 경험을 위한 혁신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올레드 TV를 필두로 한 자발광 디스플레이부터 고색재현 LCD TV까지 TV 풀 라인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LG전자는 독자 고색재현 기술 ‘퀀텀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LG QNED’ 라인업도 미니 LED TV인 ‘LG QNED MiniLED’와 일반 모델인 ‘LG QNED’로 확대한다. QNED, 나노셀 등 프리미엄 LCD TV에서도 초대형 위주의 제품 구성을 강화해 올레드 TV는 물론 LCD TV에서도 프리미엄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태우 기자 burning@

# 현대차·기아, 해외공략 ‘가속페달’ … 목표 판매량 15% 상향

글로벌 신차효과 본격화 전망 올해 총 목표 판매량 747만대 생산공장 가동률 최대 변수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올해 내수시장이 저성장할 것으로 보고 해외판매를 지난해보다 14.5%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성장세 대부분이 해외판매에 집중된 만큼, 국내생산 수출분과 현지 공장의 가동률이 얼마만큼 뛰어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판매 목표는 747만 대다.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대란을 겪었던 지난해 연간 판매 실적(약 667만 대)보다 약 12%가 늘어난 규모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목표로 삼았다.

먼저 현대차의 올해 판매 목표는 작년보다 11.1% 증가한 432만3000대다. 이 가운데 내수판매는 작년보다 고작 0.7% 수준 늘어난 73만2000대를 전망했다. 이와 달리 해외판매는 13.5% 증가한 359만1000대를 목표로 삼았다.

친환경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유럽을 비롯해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모델로 판매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아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다만 판매 목표치는 오히려 현대차보다 공격적이다.

기아의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는 작년보다 13.4% 증가한 315만 대다. 내수는 전년 대비 5.0% 늘어난 56만2000대를 계획 중이다. 이와 달리 해외판매는 무

려 15.4% 증가한 258만8000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는 최근 2~3년 사이 쏟아진 신차들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돼 신차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물량을 생산하는 국내공장과 해외 현지공장이 얼마만큼 생산량을 끌어올리느냐는 관건으로 남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소비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산업 수요가 매우 증가했다. 덕분에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는 지난해 각각 3.9%와 6.5%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두 자릿수 판매 목표 상향 조정(약 +12%)은 꽤 고무적인 계획인 셈이다.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2016년 양사 합산 780만 대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가 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이런 공격적인 판매 목표치 배경에는 다각적인 전방이 맞물려 있다.

먼저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대란이 올해 하반기부터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진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맞물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시장의 산업 수요와 대기 중인 신차 출시, 부품 수급, 공장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며 “국내(광주글로벌모터스)와 러시아 2공장, 동남아시아 공장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관련 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판매목표”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최정우(오른쪽) 포스코그룹 회장과 김주민 미래기술연구원 AI연구소장이 4일 ‘미래기술연구원’ 개원식에서 현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개원 수소 등 그룹 신성장 사업 연구

포스코그룹이 핵심 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확대한다.

포스코그룹은 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 미래 신성장 사업 R&D 컨트롤타워인 ‘미래기술연구원’을 개원했다.

개원식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미래기술연구원 개원은 포스코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표 R&D 기관으로 도약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기술혁신이 가속하고 저탄소·친환경 시대로 대전환되는 경영환경 아래에서 차세대 기술 경쟁력 선점, 그룹 미래 사업 육성을 가속하고자 미래기술연구원을 발족했다.

미래기술연구원은 기존 철강 중심의 포스코 기술연구원과는 달리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소재 △수소·저탄소 에너지 분야 3개 연구소 체제를 기반으로 그룹 핵심 사업의 종합 연구를 추진한다.

AI 연구소는 그룹 AI 컨트롤타워로서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AI 모델 설계 등을 통해 제조공정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낸다. 이차전지 소재연구소는 양·음극재, 리튬 소재 분야 선행 연구와 신제품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다. 수소·저탄소 에너지 연구소는 수소·CCUS(탄소포집저장 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해 친환경 철강 공정 선도 및 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정기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기술연구원에 김주민 AI 연구소장, 김필호 AI 연구센터장, 윤창원 수소·저탄소 에너지연구소장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외부 영입했다. 김태우 기자 burning@

## 쌍용차, 성능 강화 ‘뉴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

### 레벨 2.5 자율주행 기술 적용

쌍용자동차가 성능과 안전·편의 장비, 스타일을 개선한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출시했다.

쌍용차 가운데 유일하게 유압식 조향장치를 고수했던 스포츠와 칸 모델이 마지막으로 전자식 조향장치를 도입,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 대열에 합류했다.

4일 쌍용차는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커넥티드카 시스템을 비롯해 16가지의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시스템(ADAS)을 갖춘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선보였다.

신형 스포츠&칸의 강화된 파워트레인은 더욱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규제인 유로 6D 스텝 2를 충족해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물질을 더욱 줄여주면서도 성능

과 연비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새 모델은 업그레이드한 직렬 4기통 2.2 LET 디젤엔진과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를 맞물렸다. 이를 통해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를 낸다. 출력과 토크는 각각 이전보다 8%와 5% 향상됐다.

무엇보다 쌍용차 가운데 마지막까지 유압식 조향장치를 고수해왔던 렉스턴 스포츠와 칸도 마침내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R-EPSS)을 장착했다.

전기모터의 힘을 빌려 조향감이 뛰어난 것은 물론 운전대의 잔진동까지 걸러낼 수 있다. 무엇보다 전자식 조향장치는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 스스로 운전대의 조향각을 조절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한국조선해양, 1.7兆 규모 새해 첫 수주

### “친환경 선박 중심 수익 개선 총력”

한국조선해양은 1조6700억 원 규모의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 있는 선사와 1만5000TEU급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6척, 아시아에 있는 선사와 17만4000세제곱미터(m<sup>3</sup>)급 대형 LNG운반선 1척, 오세아니아에 있는 선사와 1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은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해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도 만족한다. 대형 LNG선은 길이 289.9m, 너비

46.1m, 높이 26.3m 규모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해 2024년 하반기 인도할 예정이다.

이 선박에는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적용했다.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뿐 아니라 선박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LNG 재액화 기술도 탑재했다.

피터 컨테이너선 3척도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해 내년 하반기부터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친환경 선박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실제 발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수주 전망을 확보한 만큼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최태원 “국가·사회가 기업 고민에 더 귀기울여야”

‘민간제안 후 정부 협력’ 변화 제안  
‘반년간 국민 기업평가 B학점 수준  
공감대·사회가치 증진 힘 모아야’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민관 파트너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구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경제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조언했다.

먼저 최 회장은 우리 기업이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의 덕목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시대와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고 그러한 방향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

하다”며 “디지털 혁명과 기후변화 등을 맞이해 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제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러면 정부가 제안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민간이 더욱 몰입하면서 진정한 민간 협력의 풍토가 확립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기술·오락·디자인’(TED)식 강연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역할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상의 회장 취임 이후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며 해답을 찾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국민과 기업인 3만여 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B학점 수준”이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국민 의견에 대해 기업이 공감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역올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차가 있었다”면서 “기업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업의 변화와 실천을 위해 힘을 모으려 한다”고 역설했다.

행사에서 분야별 권위자인 5인이 올해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김상균 강원대 교수는 ‘메타(Meta)’,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지방인구 소멸’, 임흥택 작가는 ‘MZ세대’,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은 ‘회복 탄력성’을 꼽았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무역역 달성 등 경제성적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성과가 끊임없이 혁신을 모색한 우리 기업인들 덕분”이라며 “이제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혁신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욱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년 만에 다시 대면 행사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연속 불참하며 기업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대수 기자 citizen@



현대차그룹의 로봇들이 새해를 맞아 해가 뜨는 팔각정에서 세배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임인년 새해 광고. 사진제공 현대차

## “임인년 로봇 세배 받으세요”

현대차 신년광고 2편 제작  
“미래 모빌리티 비전 담아”

현대차그룹이 선보인 2022년 임인년 새해 인쇄 광고가 화제다. 그룹의 미래 신사업 가운데 하나인 로봇이 등장, 세배하고 사람들과 어우러져 마당놀이를 즐기는 콘셉트가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그룹은 새해를 맞아 로봇들이 해가 뜨는 팔각정에서 세배하는 모습을 촬영한 △세배 편, 로봇들이 사람들과 함께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삽화로 표현한 △마당놀이 편 등 두 편을 제작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신년 인쇄 광고에는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과 올해를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으로 실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신년 인쇄 광고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과 연계도 시도했다.

일반인이 신년 인쇄 광고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그룹 페이스북 채널과 연결돼 로봇 ‘스팟’과 ‘아틀라스’가 전하는 새해맞이 영상을 감상하고 댓글을 남기는 온라인 이벤트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한다.

새해 광고에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서비스 로봇 △스팟(Spot),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Atlas), 현대차그룹의 비대면 고객 응대 서비스 로봇 △달이(DAL-e) 등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신년 광고의 틀을 넘어 영상과 디지털로 확장한 현대차그룹의 새해 광고는 인쇄 매체 광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의 일원이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올해 서비스 로봇인 스팟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이어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Stretch)를 시장에 선보인다. 올해부터 로봇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소기업·소상공인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니까

# 언제든지 노란우산

연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지급

경영·심리 무료 상담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업계 ‘미온적’

“인구밀도 높고 지형적 한계 커  
전력요금·전기 질 등 개선부터”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을 본격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단은 우선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재생에너지 선도국가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내년 12.5%에서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보급이 미흡하고 산업 시스템도 미성숙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산간 지형인데 인구 밀도도 높아 재생에너지 사업을 키우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크다”며 “전력계통 불안정성 증가, 전력시장 유지, 전기의 질 저하, 전력 요금 상승 등 문제점들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업체들 특히, 태양광 업체들의 경우 폴리실리콘 등 주요 소재와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마저 악화하고 있어 보급 확대가 답갑지 않은 상황이다.

태양광 시장 조사업체 ‘PV인사이드’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최근 킬로그램(kg)당 30달러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초 11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급증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 지표인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격도 2016년 16만 원대에서 올해 3만 원대로 급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내 산업 구조상 정부의 공급 계획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다”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나 수익성 개편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 테니스·골프 엘보우엔 록소엔겔

손목·팔꿈치·어깨·허리 근육통, 타박상에도!

## 국내최초! 록소프로펜 겔

록소엔겔은 국내최초 록소프로펜 겔 타입 진통소염제로  
골프, 테니스 엘보우 등 통증이 있는 부위에 작용하여  
빠르게 통증을 풀어줍니다.

테니스 엘보우 주요 증상인 팔꿈치 통증은 특히 주부들에게  
발생하며, 팔과 손목을 쓰는 동작에서 통증이 있습니다.

### 효능·효과

건초염(손·손목 통증), 팔꿈치 통증(테니스 엘보우 등), 관절통,  
근육통, 요통, 어깨 결림에 따른 어깨 통증, 타박상, 염좌(뺨)



# ‘리니지’ 대흥행... 엔씨, 모바일 게임 상위권 싹쓸이

구글 매출 탑5 중 3개 포진  
‘W’ 1위 ‘2M’ 3위 ‘M’ 4위  
작년 4분기 실적 반등 기대  
올 1분기 신작발표 예고도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게임 TOP5에 3개의 게임을 올려놓으며 리니지 IP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 흥행기조를 유지한다면 2021년 4분기 실적에 이어 2022년 1분기까지 최대 실적 경신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4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고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가 최고매출 1위에 올라섰다. 이어 ‘리니지2M’과 ‘리니지M’이 각각 3, 4위에 자리잡으며 5위권 내 3종의 게임을 올려냈다.

리니지W는 지난해 11월 4일 글로벌 출시 이후 초반 성적표는 하락세였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리니지W의 출시 첫날 DAU(일간 사용자)는 39만6929명이었다.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18만2142명으로 절반가량이 감소하며 주춤한 듯 했지만 국가별 이용자들간 협력·경쟁 구도가 글로벌 배틀커뮤니티 형성으로 이리저리 역대 엔씨소프트 게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지어 출시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자 폭주로 인해 접속 대기열이 발생할 정도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총 16개 월드, 192개 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북미와 유럽, 남미 등으로 출시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리니지W뿐만 아니라 리니지2M, 리니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출처: 구글

1위	리니지W
2위	오딘:발할라 라이징
3위	리니지2M
4위	리니지M
5위	로블록스

지M의 성적도 꾸준하다. 2019년 11월에 출시한 리니지2M과 2017년 6월에 출시한 리니지M는 출시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에 꾸준한 흥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초 리니지M 불매운동이 펼쳐지며 실적이 주춤하는 듯 했지만 꾸준한 업데이트 덕에 장기집권에 성공한 모습이다.

리니지 IP를 통한 흥행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엔씨소프트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고매출 순위를 10위권까지 넓혀보면 ‘블레이드&소울2’까지 포함돼 총 4종의 게임에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10위권 내 경쟁 게임으로는 카카오게임즈의 ‘오딘:발할라라이징’, 넷마블의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등이다.

증권가에서도 엔씨소프트의 흥행독식을 주목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W 서비스 9일차 누적 매출액이 1000억 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분기 실적개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658억 원으로 전년 6681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누적 매출

액 역시 1조55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하락했다. 하지만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반등에 성공하면 1~3분기 하락분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신작발표회를 통해 ‘프로젝트 TL’을 포함한 신작도 공개한다. 프로젝트 TL은 내부 테스트에서 호평을 받아 엔씨소프트의 차기 대표게임으로 꼽힐 만한 기대작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대감에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100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다. 성과에 비해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엔씨소프트가 당면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추가적인 추가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게임사 새해 키워드는 ‘도약’ ... “메타버스·블록체인 잡겠다”

넷마블, 신작 차별성 무기로  
NHN “리딩IT 기업으로 우뚝”  
위메이드 ‘위믹스’ 고도화  
컴투스홀딩스 “콘텐츠 육성”  
컴투스, 디지털 패러다임 선도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



정우진 NHN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이용국 컴투스홀딩스 대표

국내 주요 게임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키워드로 ‘도약’을 꼽았다. 새로운 시대로의 한 발 전진을 통해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수장들은 올해 목표로 잃어버린 경쟁력을 찾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통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은 “강한 넷마블, 건강한 넷마블”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애용자들이 선택해주는 경쟁

력 있는 게임을 개발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의장은 “건강한 넷마블은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임직원들의 성취감과 신뢰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준비 중인 라인업들이 다양성과 차별성을 갖추고 있어 유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은 넷마

블컴퍼니가 성장하고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우진 NHN 대표는 새해 키워드로 ‘정면돌파’를 통한 도약을 꼽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리딩 IT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한다는 포부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등 변화하는 IT흐름 속에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능력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세대들이 함께하는 시대이니만큼 일하고 싶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필두로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회사, 조직, 개인이 함께 성장을 체험할 수 있는 성장의 틀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위메이드는 오픈 게이밍 블록체인을 완성하며 위믹스를 게임계 가속화로 자리매김해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위믹스를 통해 게임계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해 왔다. 올해는 이를 고도화 해 새로운 게이밍 블록체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해의 성취로 위메이드는 이제 ‘좋은’ 회사가 됐고, 이제 ‘위대한’ 회사가 될 기회를 맞고 있다”며 “너무 비전에 압도 되지 않고, 몸도 아프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성공

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컴투스홀딩스 역시 메타버스·블록체인을 활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인다는 포부다. 이용국 컴투스홀딩스 대표는 “컴투스 그룹은 ‘글로벌 최고의 문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이라는 비전을 품었다”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긍정적인 체험과 물리적 제약이 상상을 가로막지 못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창작한 지적 재산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준·이주환 컴투스 대표 역시 “지금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시대적 물결이 메타버스,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컴투스는 올해, 게임, 콘텐츠,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 메타버스를 포괄하는 디지털 패러다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LG U+ “이견 없어” 5G 주파수 추가할당 SKT·KT “불공정”

과기정통부, 이달 경매 계획  
3.5GHz대역 20MHz폭 1개 블록 할당  
추가 필요한 LG U+ 차지할 듯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세부 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이에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상 수요자인 LG유플러스는 “이견이 없다”며 만족스러운 모습이지만, 다른 두 개사는 “추가할당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 방식 등을 공개했다. 정부는 1월 중으로 계획을 확정해 내달 공고하고, 신청 접수와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할당 주파수는 3.5GHz 대역(3.4~3.42GHz)이며 주파수 편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20MHz폭 1개 블록을 할당하기로 했다. 기술 방식은 ITU가 정하는 IMT 표준을 따라야 하며, 주파수 이용기간은 기

준 5G 주파수 3.42~3.7GHz대역 이용기간을 고려해 할당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추가할당의 관건으로 꼽힌 경매는 동시오피스·밀봉 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각 라운드마다 최저 경매가격에 추가금액을 써내 승자를 정하는 오피스입찰을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하며, 만일 50라운드까지 진행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회사가 낙찰받게 되는 형식이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대가에 가치 상승요인을 더해 산정한다.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자면 20MHz폭 7년 기준으로 1355억 원으로 점쳐진다. 또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가치 상승요인은 의견수렴 및 시장분석을 거쳐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할당 조건도 내걸었다. 먼저 이동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을 포함해 총 15만 국의 무선국을 2025년 연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통신장

에 사태를 고려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추가할당 계획의 윤곽이 나오면서 이동통신 3사의 눈치작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5G 주파수를 보면 SK텔레콤(SKT)과 KT가 각각 100MHz폭을, LG유플러스가 80MHz폭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한 곳은 LG유플러스 한 곳이다. 이미 추가 할당 대역과 인접한 3.42~3.5GHz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당초 지난해 7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곳이 LG유플러스인 점을 고려하면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폭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SKT와 KT는 추가 할당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계획 자체가 특정 사업자에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할당조건 자체도 사실상 무의미하단 평가다. 이다원 기자 leedw@

## 유연탄 급등... 시멘트값 18% 오른다

시멘트 제조원가의 40% 차지

시멘트업계가 유연탄 가격의 급등 여파로 시멘트 가격을 18% 인상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은 7년 만에 5.1% 인상됐다. 다시 또 6개월 만에 다시 인상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모았다.

4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쌍용C&E와 한라시멘트는 레미콘 업체들에 오는 2월부터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18% 인상한다고 전달했다. 쌍용C&E는 벌크시멘트 가격을 기존 t(톤)당 7만88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18% 인상한다. 한라시멘트는 t(톤)당 평균 7만8000원이던 가격을 18% 인상에 9만 원대 가격을 레미콘 업체에 요청해 둔 상태다.

쌍용C&E와 한라시멘트 외에도 삼표시멘트와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도 비슷한 인상률로 가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시멘트 가격의 주된 인상 원인을 시멘트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꼽는다. 유연탄은 시멘트 제조원가 중 약 40%를 차지한다. 2020년 유연탄 가격은 평균 t당 60달러에서 작년 5월에 두 배 수

준인 123달러로 올랐다. 지난해 10월에는 222달러까지 치솟았다. 또한, 요소수 대란과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령에 따른 공급망 문제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A 시멘트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석탄 수입은 40%를 호주에서 20%를 인도네시아에서 고 실행하고 있는데 주로 시멘트사는 호주의 공급망이 구축돼 있다”며 “다만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로 일본과 대만 국가들의 발전사가 피해를 본다면 유연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상 요청에 따른 시멘트값은 레미콘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인상 폭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쌍용C&E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가격 인상을 추진했지만, 협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7월에 협의가 이뤄진 5% 정도의 가격을 산출해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7년 동안 시멘트 가격을 동결하면서 내부적으로 원가 인상을 감내해왔다”며 “6개월 만에 다시 올린 것은 분양가 대비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유연탄값 급등과 전기료 인상 소식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 투자 늘리고, 공간 바꾸고... 영토확장 나선 유통업계

신세계백, 명품관·면세점 리뉴얼 현대백 '더현대 서울' DNA 이식 쿠팡·SSG닷컴, 물류센터 확충 편의점, 무인·배송 등 IT기술 혁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느 업계보다 빠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유통업계가 올해도 변신을 서두른다. 백화점들은 기존 매장 리뉴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서는가 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영토 확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오프라인 혁신을 이어가며 본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공간 혁신과 차별화 콘텐츠를 더해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경기점의 명품관 리뉴얼을

마무리짓고 경기 남부 상권 공략에 나선다. 경기점은 지난해 10월 1년여 간 리뉴얼을 통해 업계 최초로 지하 1층과 1층, 두 개 층에 걸쳐 명품·화장품 전문관을 선보였다.

신세계 강남점도 기존 면세점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백화점 매장으로 바꾼다. 약 4000평의 공간이 더해지는 강남점은 신세계만의 차별화 콘텐츠와 서울 최대 규모를 앞세워 프랑스의 봉마르세, 영국의 해롯과 같은 대한민국 랜드마크 백화점의 위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MZ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강화한다. 신세계백화점이 만든 '코덕들의 놀이터' 시코르'는 올해 럭셔리 디지털 플랫폼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뷰티테크(Beauty+Technology)를 결합하는 O2O 디지털 뷰티 플랫폼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



SSG닷컴 작업자가 자동화 소터에 상품을 투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SSG닷컴

는 '더현대 서울'의 DNA를 운영중인 주요 점포에 이식하고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글로벌 남성 럭셔리 브랜드를 연달아 유치하고 있는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외에도 판교점도 하반기 중으로 '남성 럭셔리 부디'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적극적인 투자로 시장 선수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쿠팡은 물류센터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운영 중인 100여 곳의 물류센터에 더해 부산, 청주, 김해, 창원, 완주에 신규 물류센터를 구축해 로켓배송 권역을 확대한다.

SSG닷컴은 하루 3000건 이상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PP(Picking&Packing)센터를 올해 상반기까지 30개로 늘린다. 지난해 인수를 마무리한 이베이코리아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유료 멤버십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강자인 마켓컬리는 올해 상장을 계기로 인프라 고도화, 물류 서비스 개선 등에 더욱 속도를 낸다. 마켓컬리는 최근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2500억 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유치해 기업가치 4조 원을 인정받았다.

존재감이 약해진 1세대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는 새로운 전략으로 반등을 꾀한다. 티몬은 커머스에 콘텐츠를 융합한 '콘텐츠 커머스'를 앞세운다. 위메프는 이용자와 브랜드를 직접 연결하는 'D2C 서비스'로 재기를 노린다.

편의점 업체들은 IT기술 혁신을 통한 차별화 서비스를 선보인다.

GS리테일은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통합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한다. 또 전자적 IT시스템 최적화로 디지털 물량을 구축한다.

CU는 편의점 신모델 개발 차원에서 최신 리테일테크를 도입한다. 그 일환으로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완전 무인 편의점 모델 개발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쿼커머스(근거리 배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인 '뉴비' 도입에 속도를 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사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한쪽에 치중했지만 이제 온·오프라인 모두를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류센터 등 배송 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온·오프라인 전략 성과에 따라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현영대 기자 yeongdai@



## 새해맞이 '꽃말 좋은 식물'

롯데마트는 새해맞이 꽃말 좋은 식물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롯데마트는 꽃말 좋은 식물을 플랜테리어에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전개했다. 부, 재산의 꽃말을 가진 '만남금', 공기정화와 가습효과에 도움을 주는 '아레카야자' 등을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일부 상품에 한해서 2개 이상 구매시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 판 커진 냉동 피자 시장 오뚜기·CJ·풀무원 3파전

코로나 집밥족 덕에 냉동 피자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울들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자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운 피자부터 외식업계까지 '레스토랑 간편식(RMR)' 피자까지 다양한 상품이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4일 시장조사 전문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냉동 피자 시장 규모는 약 1400억 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145억 원가량(약 40%) 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시장 규모가 9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5% 가까이 몸집을 불린 수치다.

특히 냉동 피자 시장은 전체 피자 시장과 비교해서도 훨씬 빠른 성장세를 자랑한다. 국내 전체 피자 시장규모는 2019년 3052억 원에서 이듬해 2994억 원으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3326억 원으로 반등해 2년 사이 10% 가량 커졌다.

냉동 피자를 필두로 한 피자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 이후 집콕족 증가로 외식업에서는 배달이 증가하고, 가정에서는 냉동 피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냉동 피자 시장은 오뚜기, CJ제일제당, 풀무원 3강 구도로 형성돼 있다. 선발주자 오뚜기는 1등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후발주자들의 시장 참여로 2017년 시장점유율 70%의 정점을 찍은 이래 2019년 56%, 2020년 47.2%, 올해 39.9%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오뚜기는 선발주자답게 떡볶이, 커피, 사각피자, 크러스트 피자 등 제품군을 확대하며 1등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도우까지 치즈로 채운 '크러스트 피자' 3종을 선보이며 점유율 확대에 힘을 실었다.

2위인 CJ제일제당은 '고메' 브랜드를 앞세워 가파르게 성장하며 오뚜기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 2019년만 해도 오뚜기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26.7%p였으나 올해 15.2%p까지 좁

### 국내 냉동피자 시장 규모



집콕에 40%↑ 1400억 규모 선두 오뚜기 점유율 39.9% 차지 CJ제일제당·풀무원 격차 좁혀

며며 오뚜기를 위협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인수한 미국 냉동 피자 2위 업체 슈원스와 협력해 프리미엄 냉동피자 라인 '고메 프리미엄 피자'를 내놓았다.

풀무원은 2019년 냉동피자 시장에 진출한 이래 빠른 속도로 시장 파이를 점령해가고 있다. 첫 진출 당시 3.7%였던 시장점유율은 이듬해 20.5%, 지난해에는 21.4%로 2위와 3%p가량으로 좁히며 CJ제일제당을 바짝 뒤쫓고 있다.

풀무원은 자체 집계한 매출액도 2020년 320억 원에서 지난해 400억 원 가까이 뛰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첫선을 보인 프리미엄 피자 '치즈폭포 시카고 피자'는 수요가 폭등해 공급 물량을 지속해서 늘려가며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다경 풀무원식품 PM은 "기존 인기 제품인 '노엣 피자'가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난해 출시한 프리미엄 '시카고 피자'의 흥행도 순조로워 더욱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집콕족 증가에 맞춰 RMR 형태의 피자도 나왔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빙스는 최근 냉동 피자 4종을 출시했다. 매장에서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스톤 베이킹' 특수공법을 적용했고, 에어프라이어 등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 "K푸드 영토확장" CJ제일제당, 글로벌·韓 본사 이원화

'불모지' 유럽에 英법인 설립 美 비비고 시장 지배력 강화

CJ제일제당이 국내외로 사업 본사를 이원화한다.

CJ제일제당은 K푸드 영토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본사를 글로벌 헤드쿼터(HQ)와 한국 식품사업으로 분리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HQ에는 마케팅, R&D, 생산 등의 주요 기능을 편제해 국내를 비롯한 해외 전 지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글로벌 HQ 산하에 식품성장추진실을 신설해 6대 글로벌 전략제품(GSP, 만두·치킨·김·김치·K소스·가공밥)을 육성하고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식품성장추진실 산

하 전략기획 부문은 미주, 아태, 유럽 등 권역별 성장 전략기획뿐 아니라 식물성식품 사업(Plant-based), 스타트업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실행을 맡게 된다.

기존에 본사가 해외법인 지원과 국내 사업을 모두 총괄했다면, 앞으로는 식품 한국총괄이 별도로 운영된다. 국내 사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 강화 차원이다. 한국총괄 산하에는 식품영업본부, 디지털사업본부, B2B 사업본부, 한국생산본부, 한국R&D센터 등이 배치된다. 한국총괄은 김상익 전 식품사업운영본부장이 진두지휘한다.

해외 권역별 추진 전략도 구체화했다.

특히 'K푸드의 불모지'로 불리던 유럽에는 영국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식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유

럽 국가에서는 대형마트 내에 슨인숍 형태인 '비비고 투고(BIBIGO TO GO)' 매장을 운영해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루마니아 까르푸 매장에 '비비고 투고' 1호점을 오픈하기도 했다. 유럽에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지난해 비비고 만두의 유럽 매출은 전년대비 70%나 늘었다.

미국에서는 K-푸드 세계화를 위해 비비고 브랜드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다. 중국은 만두와 치킨, 상온 HMR 제품을 중심으로 MZ세대들의 활발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채널 성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본은 '미초'와 '비비고' 브랜드 대형화를 목표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베트남은 김치와 가공밥, K-소스에 집중할 예정이다. 유희현 기자 yhh1209@

## 레트로 열풍에... 신세계백 아웃도어 매출 25% 쑥

쇼트패딩·어그·코듀로이 인기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아웃도어 장르 매출이 전년 대비 25.5% 성장했다고 4일 밝혔다. 매출 상승에는 레트로 패션 아이템인 쇼트패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지난해 가장 이 짧은 패딩 제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검정, 회색 등 무채색 일색이었던 예년과 달리 화사한 파스텔 색상 등도 많아졌다.

신세계 편집숍 케이스스터디는 작년 11월 노스페이스와 협업한 쇼트패딩 '눅시'를 출시했다. 눅시는 출시 당일 완판 행렬을 이어가기도 했다.

다른 추억의 패션 아이템들도 인기를 얻고 있다. 2000년대 국민 부츠로 사랑받았던 '어그'가 대표적이다. 올해 한파가 일찍 찾아오면서 디자인에 보온 기능까지 더한 양털 신발을 구매하는 젊은 고객이 많아졌다.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어그 연



신세계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하는 어그 부츠

매출은 전년 대비 65% 신장했다. 골덴으로 알려진 코듀로이 상품도 인기다. 90년대 대표 패션 중의 하나였던 코듀로이 바지와 셔츠 등은 올해 다양한 색상에 슬림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현영대 기자 yeongdai@

# 더 높아진 '주담대 문턱'... 무주택자 "청약만이 살길"

은행 대출 창구가 갈수록 좁아지면서 새해에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증가액은 11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잔액은 크게 줄어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은 사실상 막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올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더해져 전망이 어둡다. 당분간 무주택자의 청약시장 쏠림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담대 잔액 증가액은 2조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주담대 증가액은 2조1122억 원으로 2018년 2월(1조8000억 원 증가)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소 증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주담대 잔액 증가 폭 둔화와 함께 가계대출 잔액도 대폭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 2조3622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약 85% 이상 줄어든 3649억 원에 그쳤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 갈수록 좁아지는 대출 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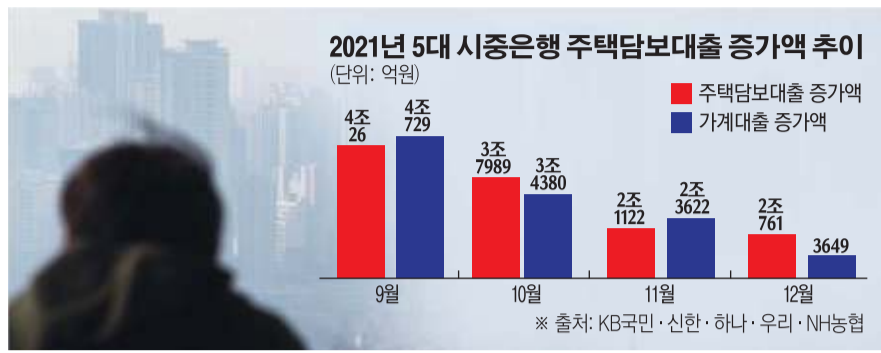
정부 규제에 주담대 증가폭 '주춤' DSR 규정까지 새롭게 바뀌어 '구축 매수' 위한 대출 더 어려워져

## 청약은 새해 벽두부터 '활활'

'계양 동도센트리움' 전용 59㎡형 '특공' 8가구 모집에 630명 몰려 고분양가 논란 단지도 경쟁 치열

강화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자 신용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올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금리가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51%로 신용대출 금리는 5.16%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7년래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내 두 번 이상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만큼 주담대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적용된 DSR 규제도 무주택자에게 큰 부담이다. 지난 1일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DSR 40%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 원으로 더 강화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매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가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 등을 위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주요 금융정책 수장들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예고해 주담대를

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내부 취약 요인은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은행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가 어려워지자 무주택자들은 연초부터 청약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에서 분양하는 '계양 동도 센트리움'은 특별공급부터 무주택자가 몰렸다. 전용 59㎡형 생애최

초 유형에는 8가구 모집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을 합쳐 총 630명이 몰렸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131가구·2개 동 규모 '나홀로 아파트'임에도 청약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집값 약세를 기록 중인 세종시에도 무주택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들어서는 '엘리프세종' 특별공급 전용 59㎡형 생애최초 유형은 38가구 모집에 349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이단지 역시 분양 전 3.3㎡당 분양가 1000만 원을 넘겨 비싸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특별공급부터 청약자가 대거 몰리는 등 새해 시작부터 청약 과열 조짐이 전국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자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의 가장 합리적인 수단은 청약이 유일하다"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 청약에도 주택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흥행 보증수표 '무순위 줍줍' 올해 들어 맥 못추는 까닭은

'신림스카이' 3수에도 14가구 미달 '에비뉴 청계 I'은 5번째 청약 나서 '경쟁률 높지만 청약당첨 포기 속출 입지·가격요건 따라 줍줍도 양극화'



서울 종로구 송인동 '에비뉴 청계 I' 조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춤하며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순위 청약은 나왔다 하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인을 찾아갔지만,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며 수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관악구 '신림스카이라파트'는 이날 네 번째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끝내 14가구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 당시 신림스카이라파트는 18가구 모집에 699명이 몰려 38.8%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4가구만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을 한 4가구 가운데 1명만 당첨자였고 3명은 예비자였다.

서울 종로구 송인동 '에비뉴 청계 I'도 10일 다섯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이후 매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에비뉴 청계 I은 지난해 5가구 모집에 487명이 몰려 97.4%의 경쟁률을 기록해 완판되는 듯했다. 하지만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이날 다시 3가구 주인 찾기에 나선다.

경기 의정부 '의정부역 리버카운티 아파트'도 10일 다섯 번째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 무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2가구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대

한 불안감 혹은 기대감으로 일단 청약을 넣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 중에는 90년대생 젊은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상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치를 돈이 없어서 청약 당첨을 포기한다"며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재청약 시 페널티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순위 청약은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심리로 청약을 넣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청약 경쟁률은 18.8대 1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쟁률은 전년 대비 89.4% 상승한 164.4대 1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청약 경쟁률은 대출 규제 강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하락으로 지난해와 달리 분양했다 하면 흥행이 아닌,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임병철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나홀로 아파트나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단지라도 분양 시장이 관망했는데, 최근 들어 외면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무순위 청약이 주인을 찾지 못해 계속 미달하는 것처럼 올해 청약 시장은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안전진단 A~C등급도 재건축 가능해지나

### 興,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장이 정비계획 입안 가능" '태릉우성' '고덕주공9' 탈락 단지 안전진단 재도전 기대감 '술술'

여당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 기준과 관계없이 해당 구역 지자체장이 재건축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 A~C등급을 받아도 재건축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31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가 A~C등급(유지·보수)이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현행법**
  -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가 A~C등급(유지·보수)이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없음.

정비계획을 세울 수 없다.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만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1, 2차 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할 수 있어 향후 사업이 진행 단계에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전 의원은 "서울 소재 아파트 15만4600가구 중 22%가 건축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본래 목적보다 부동산 정책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진단 기준 고시는 안전진단 등급별로 건축 승인 여부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

다"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전진단은 그간 시장에서 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정부는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자 1차 안전진단에서 통과했던 단지들도 이 단계에서 탈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 아파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등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대표 노후 단지들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이에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적정성 검토 일정을 미루는 단지도 나오기 시작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시장에서 재건축 완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다 보니 여당에서도 외면할 수 없어 지자체장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퇴로를 열어 둔 셈"이라며 "다만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량적인 기준들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도 함께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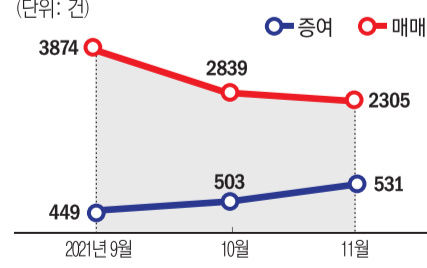
## 서울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택했다

11월 증여 531건, 2개월 연속 ↑ 매매는 2305건으로 월간 최소치 종부세 등 세금 부담에 '증여 러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는 줄었지만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449건)과 10월(503건)보다 많은 수치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11월 2305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월간 최소치를 경신한 것이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및 매매 건수 (단위: 건)



커지자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작년 11월은 종부세 고지서가 통보되기 시작한 것 외에도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종부세는 그해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

만, 대폭 늘어난 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 여부의 저울질에 나섰다. 그러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대출금리까지 인상되자 매수세는 급격히 위축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지난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 “기소 전혀 못해” vs “한살 신생기관”… 불거진 공수처 폐지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최근 통신조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과 신생 기관의 시행착오로 봐야 한다는 존치론이 부딪혔다.

앞서 공수처에 대한 통신자료 조취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애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통신자료 조취가 공수처와 무관한 외신 기자와 대학생들에게까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

폐지 측 ‘통신자료 조취’ 비판  
위법 문제에 역량부족도 제기

반대 측 ‘정치적 의도 해석 관측  
檢 개혁 후 논의해도 늦지 않아’

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폐지론자들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취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사 관행이라 할 지라도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언론인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취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자료 조취 논란은 일부일 뿐 공수처의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실제, 2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공수처 출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판사찰 의혹’과 ‘고발사주의혹’ 등 총 네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 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도 기각됐다.

정혁진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로 따지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인데 이에 비해 실력은 미흡하다”며 “검사 23명으로 구

성된 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24건의 사건을 입건했으니 사실상 한 명의 검사가 한 해 동안 단 한 건의 사건만 입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며 불거질 수 있는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공수처가 입건해 살펴보고 있는 윤 후보 관련 사건 4건 모두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승면 법무법인 면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현재 구성이 편향됐고 편파적인 만큼 다듬고 고치기보다는 해산 후 새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갖고 탄생한 만큼 폐지론은 시기상조라

는 의견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탄생한 조직이기 때문에 폐지론은 검찰을 개혁한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설립에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갔다는 해석이 제기된 만큼 현재 나오는 공수처 폐지론 역시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며 폐지론을 일축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도 “공수처가 아직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범위한 통신내역 조취와 영장청구 절차 등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던 만큼 계속 미흡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이제는 책상이 어색해요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둔산초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책상에 앉아보고 있 연합뉴스

## 서울 다중이용시설 매출 42% ‘뚝’

서울형 방역 관련 설문조사  
“경제적 어려움 커” 절반 이상  
“백신패스 도입에 동의” 43%

고수했던 반면, 협상 과정에서 7998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 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여행업 종사자·프리랜서, 코로나 19 관련 보건 인력에 대한 특별수당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 매출이 평균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백신 패스 도입에 동의하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울 2월부터 연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80만 원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도 시행한다.

종사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는 분위기다. 경제와 방역의 경계선에서 균형잡힌 대응책이 절실한 때다.

1조 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과 함께 온라인 쇼핑물 ‘서울사랑샵’에 7만 개 소상공인 업체를 입점시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서울형 방역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50.4%)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50% 이상의 매출 감소 응답도 3분의 1에 달했다. 특히 노래방, 목욕장, PC방, 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육체·정신적으로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는 각종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장기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존이 힘들다고 성토했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올 예산안에 ‘생존지원금’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축소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방역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애초 시의회가 3조 원 수준을

전날부터 시행된 백신 패스에 동의하는 비율도 43%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백신 패스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셈이다.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식당이나 무인점포는 백신 패스를 확인하는 작업도 힘들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홍인석 기자 mystic@

## “피해자 주변인 보복도 방지·가해자 엄벌 필수”

〈글 쓰는 순서〉

- ① 스토킹처벌법 첫 판결
- ② 피해자 보호·가해자 교육 절실

가해자, 두려움보다 보복심 키워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이뤄져야

A 씨는 최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검찰에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A 씨의 잠정조치 신청은 법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김재련 변호사가 맡은 스토킹 피해 사건 중 하나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검찰에 보

고하게 되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며 “스토킹처벌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잠정신청에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보호가 스토킹처벌법 목적이려면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없는 잠정조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허상’일 뿐”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한국사회는 스토킹에 관대해 가해자를 구속해야 할 사안도 잠정조치로 미봉하려 한다”며 “빠른 잠정조치에 덧붙여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스토킹 범죄는 보복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

는 1차원적 문제”라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주변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조사관은 “스토킹은 대부분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한다”면서 “가해자는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법부를 무서워하기보다 보복심을 키우게 된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 뻔한데 가해자를 달래고 일단 용서할 생각을 하지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할 피해자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허 조사관은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를 더 취약하게 하는 제도”라며 “법조차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을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도 “현행 잠정조치에는 가해자의 개선을 위한 수감 조치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일시정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 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의 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관련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외에 방역패스 처분을 취

소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냈었다.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독서실에 대한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에 대비하려는 사람 등의 학습권이 제한돼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 “올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교육부, 오늘부터 신청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출 신청 기간은 학자금 대출의 경우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의 경우 5월 19일까지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와 같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중은행 평균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과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280만 원에서 2394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지원 범위는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확대한다.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 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재학 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층 학부생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된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금도 9000만~1억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현경 기자 son89@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청소년들을 지키는 선한영양력 지금 전하러 갑니다

복지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같이도시락 지원사업



“  
청소년을  
청소년답게

하나금융그룹  
같이도시락

성장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올해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통한 금융안정”

## 금융·통화정책 수장들 신년사 살펴보니

이주열 “일부 가계·자영업자 신용위험 확대될 가능성 우려”  
고승범 “취약계층 보호조치” 정은보 “잠재 리스크 선제 감독”  
홍남기 부총리도 “금융권 리스크 관리 정부 차원 지원” 약속

국내 금융·통화정책을 관할하는 주요 기관장들이 올해 가계부채의 선제 관리를 통한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금융 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취약 요인은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예의 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글로벌 긴축 전환 등

시장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샬틈없는 금융 안정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하겠다”며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 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또한 올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감독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시장의 복원력은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그러나 잠재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층 효과(scarring effects)가 지속될 수 있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어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와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점검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4~5%대)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가계부채

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을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관장들은 부채 위험 관리 과정에서 ‘포용금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10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하고, 금융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금융권에서도 중저소득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보령제약 김정균 사장 선임 ‘오너 3세’ 경영 본격화



보령제약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보령제약 사장에 김정균 보령홀딩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사장은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손자로 보령홀딩스 대표를 겸직하게 된다.

김 사장은 2017년부터 ㈜보령홀딩스 경영총괄 임원과 대표이사를 맡아, ‘조직문화 혁신과 투명한 경영 체계 정립’, ‘신사업 역량 강화’,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 활동’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익 기반(Earning Power)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주현 기자 jooh@

## 실전투자대회 상금 2배 기금 조성 한화투자증권, 지역사회에 기부



한화투자증권은 실전투자대회 상금으로 기부금을 조성, 지역사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국내 주식 실전투자대회에서 7개 지역연합 단체전을 개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단체전에서 1~3위를 달성한 지역의 학교 및 아동센터에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3600만 원을 조성했다. 상금(18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조성된 기부금은 충청·경기·경상지역별로 각각 동양·배영·산현초등학교, 성환삼육영·세종드림지역아동센터,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등이다.

한종석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전무는 “실전투자대회는 단순한 수익률 경쟁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단체전을 마련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재 기자 sangjae@

## 우리銀 창립 123돌 특별사회공헌 결식가정 123곳에 5000여끼 제공

우리은행이 4일 창립 123주년을 맞아 결식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특별 사회공헌사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연계한 국내 결식아동 식사 지원사업 ‘따뜻한 한 끼’를 통해 123곳의 결식가정을 대상으로 약 5000여 끼를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그동안 임직원과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했던 창립기념식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사회공헌에 참여하기로 했다.

식단은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과 입맛을 고려해 한식, 중식, 양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취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따뜻하게 배송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더하는 든든하고 따뜻한 상생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홈스, 결국 유죄 평결 ‘피 땀 방울로 질병 진단’ 투자자 속여...4건 각각 최대 20년형

피 땀 방울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속였던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홈스(사진 가운데)가 결국 실형을 살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배심원은 바이오벤처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스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12명의 배심원단은 9건의 사기 혐의 중 3건과 2건의 공모 혐의 중 1건 등 총 11건 혐의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환자 사기와 관련한 4건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다른 3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홈스는 테라노스가 혈액 몇 방울만으로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었다. 소식에 테라노스 기업가치는 한때 90억 달러(약 11조 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게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회사는 청산됐다. 홈스는 이제 재판부의 선고를 남겨 두고



있다. 아직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재판까지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WSJ는 “홈스의 항소는 확실해 보이며, 모든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유죄 평결이 난 혐의 4건은 각각 최대 20년 형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사진 AP뉴시스

## 데이비드 보위 저작권 3000억원 매각...사망 뮤지션 중 최대

가수 데이비드 보위(사진)가 생전에 발표한 400여 곡의 저작권이 워너뮤직에 매각됐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뮤직이 보위의 유족과 저작권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계약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

지만 2억5000만 달러(약 298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뮤지션 중 최대 금액이다. 보위는 영국 출신으로 1967년 데뷔 앨범 ‘데이비드 보위’ 이후 2016년 사망 직전 발표한 앨범 ‘블랙스타’에 걸쳐 50년 가까이 록 음악을 이끌어왔다. 1970년대 글램록



시기를 거쳐 유럽의 일렉트로닉 음악을 받아들인 ‘베를린 3부작’을 발표했다. 1980년대에는 ‘뱃츠댄스’ 등 히트곡을 앞세워 팝계의 정점에 올랐다. 그는 1990년대 이후에는 인더스트리얼 록과 드림앤드베이스, 테크노 등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했다. 이혜리 기자 hyeri@

## 인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총정북도 이기영 △혁신도시상생발전과장 이호
- ◆국세청 ◇초임세무서장 △통영세무서장 이규성
- ◆한국어촌어항공단 ◇1급 승진 및 보임 △어촌해양본부장 나승진 ◇2급 승진 △어항정화팀 조동식 ◇3급 승진 △동남해지사 어항안전팀 최재현 △ “어촌뉴딜팀 전기용 ◇보임 △어장생태본부장 고진필 △기획조정실장 이진형 △사회가치혁신팀장 이진욱 △안전보건팀장 김홍식 △귀어귀촌종합센터장 정준영 △어항안전팀장 정영복 △어항정화팀장 조영진 △어장산업팀장 최세현 △어장생태팀장 김혜정 △교육운영팀장 김민성 △어촌뉴딜총괄팀장 김국주 △어촌뉴딜사업팀장 최재현
- ◆우리카드 ◇부사장 이동 △마케팅전략부 부장 김동근 △데이터영업센터 부장 김영록 △고객센터 부장 민행기 △가맹점 마케팅부 부장 이대호 △채널영업부 부장 윤준주 △강북지역센터 센터장 김경준 △인천지역센터 센터장 장경호 △법인영업

- 부 부장 장중하 △기업금융부 부장 한중삼 △디지털기획부 부장 박상엽 △디지털채널부 부장 이기문 △전략기획부 부장 안상원 △WON네트워크총괄부 부장 김동문 △재무기획부 부장 권순재 △HR기획부 부장 이정 △글로벌사업부 부장 한철희 △총무부 부장 김동건 △프로세싱부 부장 황관택 △캐피탈심사부 부장 이광철 △발급지원부 부장 김보경 △차세대IT추진부 부장 곽호석 △준법지원부 부장 정종상 △신규 △상품R&D부 부장 박호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하형석 △청소년미래생태연구실장 황여정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 최우환 △청소년창의혁신연구실장 최인재 △청소년인권보장연구실장 김경준 △청소년 삶의질연구실장 김희진 △청년정책연구실장 김형주 △연구기획실장 정은주 △경영지원실장 정익재 △감사실장 이권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이지연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장 최정원 △청소년진로개발센터장 강경균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 모상현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장 백혜정 △학업중단예방·

- 대안교육지원센터장 황세영
- ◆유진그룹 [유진투자증권] ◇승진 <이사대우> △채피언스랩운영팀장 안성재 △위워크프론티어점 지점장 홍윤선 △포항지점 지점장 배일수 △채권영업팀 황승엽 <영업상무> △말티금융팀 박정식 <부장> △경영전략팀 하승우 △인사전략팀 최승렬 △업무개발팀 김성훈 △WM추진팀 서상진 △채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WM1센터 마남표 △서울WM센터 1센터 권향 △영업부 노승훈 △대방동지점 정경희 △법인영업팀 신영래 △Coverage팀 이장현 △금융소비자보호팀 김동운 ◇보임 △채피언스라운지 금융센터 금융센터장 조희선 △서울WM센터 WM센터장 유만식 △분당WM센터 WM센터장 한덕수 △리스크관리팀장 김지훈 [유진자산운용] ◇승진 <본부장> △부동산투자1본부장 박민호 <수석매니저> △부동산투자2팀장 반두혁 △부동산투자2팀장 손연찬 ◇보임 △준법감시인 이상훈 [유진투자증권] ◇승진 <영업이사> △상품운용4팀장 배성우 △상품운용1팀 한창우 △상품운용4팀 최권식 <부장> △경영관리팀장 권순옥 △정보기술팀 최은창 △해

- 외상품질팀 관민서 ◇보임 △기획관리본부장 장동훈 △정보전략영역본부장 장만우 △홀세일영업본부장 박기철 △글로벌영업본부장 최성민 △상품운용1팀장 김요섭 △선물영업2팀장 정홍길 △정보기술팀장 김남수 △국내영업지원팀장 이경숙
- ◆에프앤가이드 ◇본부장 선임 △금융정보사업본부장 이준희 △펀드평가본부장 최성욱 △IT서비스본부장 이영진
- ◆한국펀드평가 ◇이사 △평가1본부 김기영 △정보사업본부 이우용 ◇이사대우 △평가2본부 박정준 ◇부장 △리서치센터 송인욱 △정보컨설팅팀 신철순 △전략기획팀 유수연 △경영관리팀 이동규 △OCIO컨설팅팀 이미경 ◇본부장 △평가3본부 이진섭 ◇실장 △평가1본부 평가1팀 이희원
- ◆쉴링 ◇선임·승진 △대표이사 부사장 손준구
- ◆IT조선 △디지털파이낸스부장 손희동
- ◆세정일보 ◇편집국 △산업(탐사)부문 부국장 신관식 △조세정책부문 부장 권종일
- ◆투데이코리아 ◇승진 △통합뉴스룸 총괄팀장 김성민 △ “산업금융부장 안현준

## 부음

- ▲이봉녕 씨 별세, 이성욱(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씨 부친상 = 2일, 설낙원 인천장례식장 3층 특7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032-548-1009
- ▲김보겸 씨 별세, 윤성현(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육성팀 프로) 씨 장인상 = 3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B1, 발인 5일 오후 2시, 042-280-8181
- ▲박선달 씨 별세, 나완찬·경숙·우찬 씨 모친상, 송석찬(전 국회의원) 씨 장모상 = 4일, 대전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42-825-9494
- ▲박금옥 씨 별세, 신선희(전 국립중앙극장장)·기남(제15~17, 19대 국회의원)·기도·기호 씨 모친상 = 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6일 오전, 02-2258-5940
- ▲나동철 씨 별세, 나용길(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 씨 부친상 = 4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설낙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50분, 044-995-4003
- ▲전화자 씨 별세, 한승하(세계일보 편집국 부장) 씨 모친상 = 4일, 전남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061-759-9090

미국은 지금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

키워드로 살펴본 2022년 미국 경제

미국 경제는 바이러스가 초래한 공급망 제약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바이러스 변종의 출현은 경제 성장에 하방 위험을 드리우고,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2022년에 경제성장률이 추세보다 높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이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의 해였다면, 2022년은 경제가 균형으로 재조정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1년 미국 경제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소비지출의 회복으로 코로나 팬데믹에서 부활하는 한 해였다. 경제가 다시 개방되면서 강한 성장을 달성하였고, 공급 부문은 회복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공급망 병목 현상, 노동력 부족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2022년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미크론의 확산,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 등 경제의 하방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2년 미국 경제를 전망해 본다.

경제성장률.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22년 국내총생산(GDP)은 3.8%에서 4.4%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전망치는 2021년보다는 낮지만,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는 높다. 경제가 완전한 회복의 길에 들어서고, GDP가 코로나19가 없었던 수준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빠르면 올해 말에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종이 발견된 후 미국 경제활동에 대한 예측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확산. 오미크론의 출현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지지만 증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경제 재개를 늦출 수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대응이 과거보다 둔감해졌기 때문에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오미크론이 확산하여 공급 부족 문제가 재발할 수 있지만, 무역 파트너들의 경제 회복과 백신 접종률 증가는 공급 차질이 재현될 가능성을 낮춘다. 다만 공급 차질과 노동공급의 지연은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 압력.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년 동안 급등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된 지난 11월 인플레이션율은 6.8%로 30년래 최고치였다.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원자재를 조달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생산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올라와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많은 생산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고, 연말까지 2.5%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전문가들은 연준이 테이퍼링(Tapering, 양적완화 종료)을 통해 긴축을 시작하는 시점을 올해 중반으로 예상한다. 그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양적완화가 끝난 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빠른 시기는 올해 3분기 이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되면, 금리 인상 시점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 내수는 위축되고, 채권 이자율 상승은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 심리는 약화된다. 따라서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은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유연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국은 과거보다 진전된 기후목표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래 약속과 현재 정책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

다. 지금 필요한 일은 현재 정책에 기초하여 온난화가 세기말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정책과 투자를 통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도 중요하다. 즉각적이고 원활한 정책 이행과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질서정연한 과정을 거칠 때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오미크론의 확산과 같은 눈 앞의 과제와 씨름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경제는 바이러스가 초래한 공급망 제약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바이러스 변종의 출현은 경제 성장에 하방 위험을 드리우고,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2022년에 경제성장률이 추세보다 높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이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의 해였다면, 2022년은 경제가 균형으로 재조정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 부문의 문제에 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노트북을 열며



박선현 디지털미디어부 차장

왜 성공한 '워킹대디'는 없는가

이투데이, 말투데이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을 즐겨 본다. 보통 사람들의 진성성 있는 이야기가 좋다. 순수한 입담에 웃고, 절절한 사연에 온다. TV를 끄고서도 자존감을 고민하게 만드는 여운이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윤여선 전 LG아트센터 대표 편이다. 그녀는 국내 최초의 여성 임원이다.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거머쥔 윤여정의 동생이기도 하다. 마흔이 넘어 입사하게 된 계기와 유리천장 아래에서 외계인 취급을 받았던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육아의 책임은 엄마 혼자가 아닌 부모의 몫"이라고 위로했다.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된 육아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였다. 확진자

가 늘어 수개월 동안 아이 들을 혼자 돌보다. 입맛 까다로운 첫째를 위해 매 끼니 밥을 지었고, 이가 나지 않은 둘째를 위해 재료를 매년 다져 이유식을 만들었다. 호기심 많은 아이에게서 잠시라도 시선을 떼면 이내 사고가 터졌다. 한숨을 돌린 만큼 집안은 엉망이 됐다. 나를 위한 건 '육퇴' 후 마시는 맥주 한 캔이 전부였다. 그 시간 남편은 없었다. 당시 프로젝트를 맡았던 남편은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집에 왔다. 그리고 또 일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속은 아니었다. 몇 달 전 내가 복직을 하면서 우리 부부의 골은 더 깊어졌다. 아이들 픽업, 저녁 식사, 목욕, 잠자리로 이어지는 루틴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짜증이 났다. 예정에 없던 회식과 늦은 퇴근은 싸움의 빌미가 됐다. 결국 얼마 전 남편은 직장을 옮겼다. 유연 근무가 가능한 곳이었다. 아침 일(등원 준비)과 저녁 일(목욕과 잠

자리)을 나눠 하다 보니 갈등이 줄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 부부가 이런 고민을 풀어내고 있을 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 말이 귀에 들어왔다. 격하게 공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작년 육아휴직을 한 남성은 3만8500명(전체 16만9300명)을 기록했다. 10명 중 2명이야빠른 얘기다. 10년 전(1960명)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결과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압도적이다. 제도가 있는데도 워킹대디가 흔치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눈치 때문이다. 몇 해 전 만났던 한 시중은행 임원은 "같은 연차에, 비슷한 역량을 보이는 남자 직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썼고, 한 사람은 안 썼습니다. 임원으로서 누구에게 인사 점수를 더 줘야 할까요"라고 했다. 당시

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여성 임원들의 인터뷰 기사를 쓸 때 수식어로 워킹맘을 습관처럼 달았다. 그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 남자 임원에게는 '워킹대디'를 쓰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나 자신도 남녀의 역할을 가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그 임원에게 "나머지 한 명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죠"라고 답하지 않은 게 후회스럽다. 인식을 바꾸는 일은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엔, 우리 앞에 놓인 현실(합계 출산율 0.82)이 너무 아찔하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우린 알고 있다. 문제는 해결 방식이다. 이제 제도적 넛지(nudge)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강제적이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워킹대디를 볼 날을 기대한다. sunhyun@

☆가타야마 교이치(片山恭一) 명언 "다들 '힘내요' 하고 말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힘내요'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힘을 낼 방법이 없어 슬퍼하고 있는데." 1986년 '기적'으로 '문학계' 신인상을 받은 일본 작가. 대표작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대중이 그의 작품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세상은 움직인다', '타력' 등이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날. 1959-.

기자수첩



이수진 / 사회경제부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유에서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알 수 없게끔 돼 있다. 그 배경이 궁금하면 번거롭더라도 검찰에 직접 연락해 물어야 한다. 지검 민원실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더니 민원실은 도리어 지검 내 어떤 부서에서 어떤 담당자가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물어왔다. 입장이 뒤바뀐 느낌이었다. 민원실에서는 잘 모르겠다며 "총무과에 문의하라"고 했고, 총무과에서도 "민원실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도돌이표처럼 돌아왔다. 통신자료 조회 이유를 묻는 민원 처리에 능숙하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몇 시간이 흘러 어렵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수사관과 연락이 닿았다. 그 당시 한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와 전화통화를 한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공수처는 그마저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출입처를 불문하고 영상기자, 외신기자 등 광범위한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지만 왜 조회했는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라는 수사방식은 보장돼야 한다. 물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공직자가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

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지만,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사기법이기도 하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이 즉각적이고 원활한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 요청 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수시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모든 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즉각 통보하면 가입자는 그 이유를 더 쉽게 파악하고 공권력 오남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수사기관도 민원인에게 통신자료 조회 목적을 알려주는 절차를 정립해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abc123@

☆ 시사상식 / 그린슈트 (Green Shoots)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국면을 맞이한 상황을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의 새싹'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영국 정치인 노르만 라몬트다. 1991년 경기침체 때 경기 반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이 용어를 썼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 후 미연방준비위원회(FRB) 벤 버נק이 의장이 이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발언한 뒤 유행한 말이다. ☆ 고운 우리말 / 꼬치지 '아주 오랜 옛날'이란 말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정치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다음 정부에 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집값 하락세를 자신했지만, 새해를 맞아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상승폭은 축소하더라도 하락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정부와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클까’라는 아쉬움이 든다.

사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다.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움직여야 하는데, 중간에 ‘정치’라는 부분이 끼어들며 변수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만 26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이 중 시장 안정을 위해 제대로 작동한 것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보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있다고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정부의 정책을 비웃었다. 규제를 강화하자 오히려 집값이 더 뛰었다.

## 데스크칼럼

이재영

부동산부장 대행



결국,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공급 확대를 선언했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건보료 등 세제 혜택을 줬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값 폭등과 투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가 반발이 거세져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정의 오락가락 대처에 혼란만 이어졌고, 그 사이에도 집값은 날뛰었다. 서민들은 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주택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신용한다.

‘수주대토(守株待兔)’라는 말이 있다.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힘을 들이지 않고 요행으로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거나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찌면 이 말과 어울리

지 않나 싶다. 단순히 시장 상황을 보려는 노력이나 현장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겠지. 그렇게 주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집값이 잡힐 거야’, ‘이렇게 정책을 내놔보고 안 되면 바꾸면 되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만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닐까 싶다.

과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단순히 A라는 정책을 내면 나아지겠지, B라는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이 변할 거라며 요행만 바란 것은 아닐까.

최근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효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최근 만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지금 아무리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들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시장 원리보다 정치에 영향을 더 받는데, 결국 3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부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상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현 정부처럼 수십 차례의 대책으로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느니 때로는 시장 원리에 맡길 수 있는 정부가 되길 희망해 본다. lly0403@

## 사설

### 가계부채 신용위험 확대, 취약계층 대책 절실

금융·통화정책 수장들이 올해 가계부채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 관리와 위기 대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은 4일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우려했다.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차입)와 업황부진에 빠진 자영업자 및 가계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것”이라며, “대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부 취약요인이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말 기준 1844조9000억 원이다. 1년 전보다 9.8% 불어난 규모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린 데 이어, 이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 1.25%로 추가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 조기 종료와 올해 3회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출금리도 따라 오름세이고, 가계대출의 80% 가까이가 변동금리 조건이다. 부채의 부실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모두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와, 금융불안을 초래할 잠재 리스크의 선제적 감독을 강조한 이유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부채 증가세를 4~5%로 묶기로 했다.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조치가 시행되면서 금융 수요자들의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문제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이 멈추지 않고 내수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신용도 낮은 서민과 취약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다. 부실 규모가 커지면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급속히 흔들리고,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위험성이 증폭된다. 충격을 줄이기 위한 취약 차주(借主) 보호와 별도의 금융지원 방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거시경제적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국내 금리 상승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이 겹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악화하는 사태가 가장 우려스럽다.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를 더 가라앉힐 수밖에 없다. 한은은 비관적 시나리오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예측도 내놓았다.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돈 퍼주기식 선심 공약은 경제운용의 정치적 리스크만 더 키우고 있다. 금융과 통화정책 당국이 확실히 중심을 잡고 가계부채의 위기를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새해 흥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통화 정책 기조로 가계부채, 불평등 확대, 기후 변화 등 한국 경제의 취약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흥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규모는 2조20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총리의 신년 각오가 무색하다. 또한 1.5~1.75%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에 따라 대출 연체를 증가가 예측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꼽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코로나19 대유행 등 경제여건 악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7.2% 증가한 1628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가구의 금융부채는 최근 3년간 18.1% 증가하였지만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8.6%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가구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연소득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부채 증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5.5%, 가계부채는 8.6%, 기업부채는 9.3%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가계부채는 각각 4.8%, 5.0%, 6.2%, 4.5%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정부부채가 최소 11.7%에서 최대 29.0%까지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의 정부부채는 5.5%

## 대방로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증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평균성장률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1.6%로 주요 20개국(G20) 내 선진국 10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내총생산(명목)은 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정부부채 증가율, 경제성장률, 지역내총생산 모두 증가하여 정부의 살림은 쌓이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큰 폭 증가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살림은 궁핍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국민들에게 돈을 푸는데 인색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펴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2021년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의 규모는 16조 달러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일본이 44.2%로 높은 편이고 독일(38.8%), 영국(32.4%), 미국(27.9%)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4.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근로소득 감소에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으로 소비자 보호 및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상환을 유예

하고, 실업급여를 확대(매주 600달러)하는 등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영국은 재정회복력이 낮은 사람(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저축 수준이 낮은 사람)이 1070만 명에서 142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자 먼저 코로나19 일자리 유지 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을 시행했다. 고용주가 해고된 근로자 임금의 80%를 지불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16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황도 유예하였다.

주요국들은 정부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가 곧 국가적 위기라는 공식으로 ‘국가부도의 날 IMF’ 공포가 있는 국민들에게 보수적 재정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과 DSR 규제 등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예고하였다.

대출 규제는 일시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성을 낮추겠지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82.3%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가계부채 억제 방안이 아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규모 축소는 결과적으로 대출자들을 이중고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가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감싸고 한은은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폴리믹스(Policy mix)’를 시도하려면 추경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다운 보상’을 하고, 지원 절차는 ‘선보상 후정산’으로 신속하고 간소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자 이중고 문제 해결, 저자산 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

## 마음상담소

###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

새해 첫날 SNS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받고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지난해 50, 60대 중년 남성들로 구성된 스마트폰 사진 동아리 회원 중 한 분이 사진을 올린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몇 번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이는 동안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고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터라 격정이 많았는데 뜻하지 않게 소식을 전한 것이다. 내게는 이 작은 변화가 외부인에게 전하는 반응이고 소통의 시작이기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이 희망이듯이 이분에게도 동아리라는 불씨가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맞이하는 새해와 함께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도 고독생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도 있고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인 분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즐겁게 사는 사람들보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 육체적·정서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인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할 일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허탈

감이 크기에 ‘사는 삶’보다는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들여다보면 천지 차이가 있다.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고,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는 희망, 내일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러나 ‘살아내는 것’은 살아야 할 희망이 없다 보니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혹은 두려움으로 하루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일 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버텨내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는 삶’이 아닌 ‘살아내는 삶’은 애처롭고 아프다. 이분 역시도 삶이 지금까지는 살아내는 일상의 연속이었을 게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비록 사진 한 장이지만 이 작은 변화는 처음으로 내게 보여준 유능감이기 에, 이 유능감이 어찌면 이분에게 그동안의 ‘살아내는 삶’이 아닌 ‘사는 삶’을 사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감히 해 본다. 나 역시도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응원할 것이다.

김현주 서울 강서구보건소 사회복지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